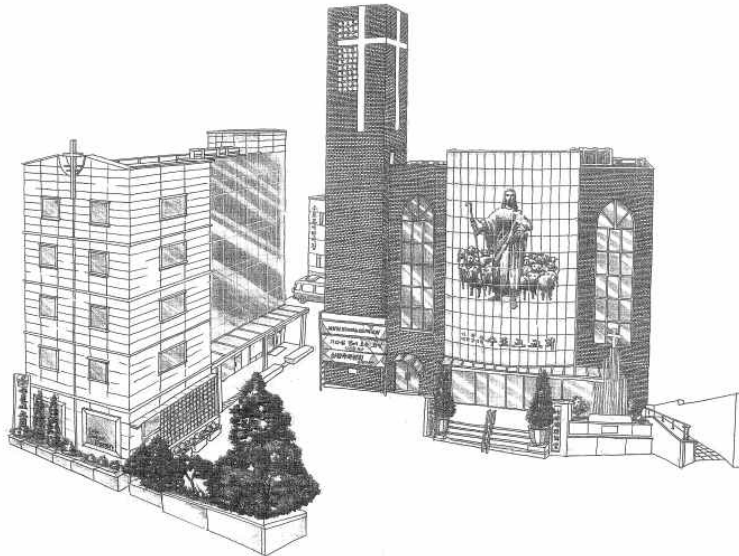


2024년 제16회 수표교포럼

한국 사회의 미래와 한국 교회 2050 비전



일시: 2024년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

장소: 수표교교회 예루살렘(유튜브 중계)

주최: 수표교교회

주관: 수표교포럼위원회

후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수표교교회

초 대 합 니 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07년 수표교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수표교 포럼은 위기와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외침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와 사회를 읽어내는 소명감’, ‘철저한 회개에 기반을 둔 영적 각성’, 그리고 ‘섬김과 봉사를 통한 빛과 소금의 역할’은 그동안 수표교포럼에서 확인한 한국 교회의 신앙의 향기이자 믿음의 전통이었습니다.

수표교포럼은 최근 3년 동안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모색해 왔습니다. 2021년 시니어 세대, 2022년 미래 청년 세대, 2023년 이민국가 시대의 도래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올해 포럼에서는 “한국 사회의 미래와 한국 교회 2050 비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우리는 여러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수축 사회’ 시나리오입니다. 한국 사회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제 성장 시대는 끝이 났고, 수축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는 성장 시대의 한 산물이기도 합니다. 성장 시대와 달리 수축 시대는 전체 파이가 줄어들어 사회적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경쟁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50년은 2023년 태어난 23만명의 아이들이 스물 일곱 청년이 되고,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까지 매년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던 지금의 장년 세대가 한국 역사상 가장 건강한 70대와 80대를 보낼 때입니다. 이 때 한국 사회와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되고, 또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하며 치열하게 고민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024년 10월
담임목사 김진홍 드림

“한국 사회의 미래와 한국 교회 2050 비전”

프로그램

● 개회사

- 김진홍 목사 (수표교교회 담임)
- 유병용 목사 (브니엘교회, 서울남연회 감독 당선자)

● 주제발표와 토론

- 사회: 이재열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수표교교회 권사)
- 주제발표 1: 2050년 미래전망과 시민들의 선호미래
박성원 박사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발표 2: 2050 한국교회 전망과 새로운 교육 비전
박상진 목사 (한동대 석좌교수)
- 지정논찬:
박해정 교수 (감리교신학대)
장창일 기자 (국민일보 종교부)
김주송 목사 (광림교회 청년선교국)
- 자유토론
- 감사 말씀/광고
강대중 권사 (서울대 교육학과, 수표교포럼위원회 위원장)
- 강평/축도
김진홍 목사 (수표교교회 담임)

“한국 사회의 미래와 한국 교회 2050 비전”

목 차

[발제] 2050년 미래전망과 시민들의 선호미래(박성원 박사)	4
[발제] 2050 한국교회 전망과 새로운 교육 비전(박상진 목사)	14
[논찬] 박해정 교수	44
[논찬] 장창일 기자	46
[논찬] 김주송 목사	48

주제발표1

2050년 미래전망과 선호미래

박성원 미래학자 (국회미래연구원)

1. 서론

미래에 관한 아이디어는 영뚱할수록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많은 경우 영뚱한 것은 영뚱한 채 사라진다).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나 미래학자에게는 미래를 전망하는 하나의 원칙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해 새로운 변화를 있는 그대로 포착하려면 과거의 틀이나 패턴에서 벗어나 좀 더 열린 시각으로 변화를 관찰하고 전망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는 단순히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과 잠재적인 변곡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미래를 전망하려면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오늘 발제할 2050년 미래전망은 다소 영뚱하고 예상하기 힘든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머징 이슈는 현재 데이터가 부족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발생하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이슈로 정의한다.

이런 이머징 이슈를 발굴하고 만드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미래에 대한 민첩성과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이슈들이 발생할지 알 수 없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미래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머징 이슈들은 우리의 사회적 상상력을 확장한다. 현재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들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사회적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런 발상으로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을 더 유연하게 변화시키며, 미래에 더 적합한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머징 이슈들은 잠재적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는 데도 필요하다. 실현의 가능성이 낮은 이슈들이라도 현실화될 경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예상치 못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나 사회적 혁신의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다.

영뚱한 이슈들은 미래의 여러 변화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이슈들은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연결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합적 사고는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며, 미래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2050년 미래에 어떤 이슈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2050년이라는 시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현재와 매우 다른 미래의 시공간으로서 2050년을 상상해보자. 일어날 확률을 가늠하려는 노력은 잠시 멈추고 이런 미래의 일이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10개의 이머징 이슈를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머징 이슈의 도출 방법은 이 글에서 거론하지 않겠지만, 필자의 예측 이론과 경험, 자료에 근거해서 도출했음은 밝힌다.

2. 2050년 전망: 이머징 이슈를 중심으로

10개의 이머징 이슈는 개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족, 사회적 관계, 주거 환경, 일자리를 시작으로 교육, 정치경제 시스템, 국제관계 그리고 우주까지 확장해서 분류하고 서술했다.

■ 미래 이슈① 2050년, 아이의 감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는 엄마가 아닌 인공지능이다

전통적으로 아이의 감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부모, 특히 엄마였다. 그러나 2050년에는 인공지능이 아이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부모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아이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준다. 부모의 감정적 연결이 인공지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가족 내 인간적 연결이 기술로 대체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Face ID는 얼굴 표정을 분석하여 감정을 추정하며, 아마존의 감정 분석 AI는 목소리를 통해 사용자의 감정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Emotion AI라는 감정 인식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오울렛(Owlet) 스마트 양말은 아기의 심박수와 산소 수치를 모니터링해 부모에게 알리를 보내주고, 나닛(Nanit) 카메라는 아기의 수면 패턴을 분석해 부모에게 조언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반의 양육 조언 챗봇들이 나왔는데 글로우 베이비(Glow Baby) 같은 애플리케이션은 아기의 성장과 건강 상태에 맞춰 맞춤형 육아 조언이 가능하다. 아이가 성장해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이 되어도 부모보다 인공지능을 더 찾을 수 있다. AI는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의 미세한 변화를 분석하여 부모가 놓치는 감정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2050년 겨울, 만약 당신이 우울하면 누구를 먼저 찾겠는가.

■ 미래 이슈② 2050년, 사람들은 가족을 만들지 않고 '감정적 계약 시스템'을 만든다

2050년에는 혈연이나 법적 입양 대신, 감정적 유대와 계약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사람들은 서로의 감정적 필요와 이해를 기반으로, 사회적 계약을 맺어 가족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계약은 생물학적 관계가 아닌 감정적 연대로 이뤄진다.

감정적 계약 시스템은 다중 가족 관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한 번의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적 계약을 통해 다양한 가족 관계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과 감정적 계약을 맺어, 복수의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한 개인이 한 그룹에서는 경제적 역할을, 다른 그룹에서는 감정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50년 인류는 AI 챗봇, 가상 비서, 소셜 로봇들과 감정적으로 소통하고, 감정적 필요를 충족할 것이다. 레플리카(Replica)와 같은 대화형 AI는 사람들이 매우 깊은 감정적 유대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만이 감정적 유대감을 느끼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 미래징 이슈③ 2050년, 학생들은 교실, 선생님, 학교, 수업, 학생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대신 '학습 큐브', '지식 디자이너', '학습 플랫폼', '경험 세션', '지식 탐험가'라는 단어를 안다

2050년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은 사라진다. 교실, 학교, 선생님, 수업, 학생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새로운 용어들이 자리 잡는다. 학습은 더 이상 고정된 공간이나 구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들은 자신만의 학습 큐브에서 경험을 통해 지식을 탐험하며, 지식 디자이너와 협력해 교육 과정을 만들어나간다.

학습 큐브(Learning Cube)는 각 학생의 학습 스타일, 속도, 흥미에 맞춰 개별화된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물리적 공간이든, 가상 현실(VR) 기반의 공간이든 학생의 요구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화하고 최적화된다. 학습 큐브 안에서는 학생이 선택한 주제나 과목에 맞춘 학습 환경이 구성된다.

가상 현실(VR)과 증강 현실(AR)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Google Expeditions는 학생들이 VR을 통해 가상의 여행을 떠나 역사적 사건이나 과학적 현상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zSpace와 같은 교육 플랫폼은 물리적 교실이 아닌 가상 환경에서의 실험과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Minecraft Education Edition은 학생들이 가상 공간에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며 학습하도록 도와준다. 이곳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기법을 이용해 학생들이 더 몰입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미래에 교사들은 더 이상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가이드나 멘토로 활동한다. 예컨대,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은 교사들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강조한다. 교사가 지식 전달자가 아닌 지식 디자이너로 역할을 바꾸면 학생들은 전통적인 수업 대신 자신의 학습 여정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 미래 이슈④: 2050년, 서울의 작은 골목길들은 탐험하기 좋은 야생의 숲으로 변한다

과거에 서울의 골목길들은 좁고 복잡하며 차들로 가득한 공간이었지만, 2050년에는 그 골목길들이 탐험하기 좋은 야생의 숲으로 변모한다. 도심에서도 마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변화는 골목길이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닌, 사람들이 도시 속 자연을 모험하고 탐험하는 장소가 되는 극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여러 도시에서 도시 재자연화(rewilding)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런던은 국립공원도시(National Park City)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도시의 곳곳에 자연을 다시 도입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뉴욕의 하이라인(High Line)은 고가의 화물차 도로를 숲과 공원으로 바꿨다. 싱가포르의 스마트 도시와 자연을 결합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도시 공간에 녹지를 확장하고 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도심 내 자연 공간을 늘리고 있다. 서울에도 서울숲과 같은 대규모 녹지 조성 프로젝트가 꾸준히 전개된다.

생태 복원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시 내에서 자연을 복원하고 유지하는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 생태공학을 통해 자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자연 생태계를 구축하는 시도가 늘어나며,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연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수직 정원과 그린 월(Green Wall) 기술은 제한된 공간에서 자연을 복원하고 유지한다. 생태 복원 기술이 골목길에 적용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숲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도심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산책과 탐험은 많은 시민에게 인기를 끌 것이다.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며, 이에 따라 도시 내 자연 공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작은 골목길들이 숲으로 변하고, 시민들이 이를 탐험하는 것이 도시 생활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잡을까.

■ 미래 이슈⑤ 2050년, 사람들은 극한 기후에 맞춰 하루에 옷 세벌을 준비해 출근한다

하루 중 아침, 점심, 저녁에 날씨가 급격히 바뀌는 미래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한 벌의 옷으로 하루를 버티지 못한다. 통상 세 벌의 옷을 준비해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다. 출근길에는 춥고, 점심에는 덥고, 퇴근길에는 갑작스럽게 눈이나 비가 오는 극단적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기상 예측 기술은 매우 정교해져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날씨 데이터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등장했다. 아큐웨더(AccuWeather)와 같은 앱은 시간 단위로 날씨를 예측하며, 클리마셀(ClimaCell)은 스마트폰, 자동차, 비행기 등의 IoT 센서를 활용해 매우 세밀한 지역 기반의 날씨를 예측한다.

급격한 날씨 변화에 따라 스마트 의류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콜롬비아 스포츠웨어는 옴니 히트(Omni-heat) 기술을 개발해 달 탐사용 우주복을 제작했으며 극저온과 극고온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언더아머(Under Armour)에서 개발 중인 의류는 스스로 착용자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 기온이나 습도에 따라 옷의 두께와 기능이 변하는 옷들도 개발 중이다. Google의 자카드(Jacquard) 프로젝트는 대화형, 반응성 섬유를 개발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명령으로 입력한다. 섬유에 원을 그리면 날씨를 알려주고 ‘M’를 그리면 음악을 틀어준다.

2050년 우주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를 돌아다닌다면?

■ 미래 이슈⑥ 2050년, 청년들은 자신이 일하는지도 모르게 일하며 돈을 번다

2050년, 인간의 몸은 더 이상 단일한 개인(Individual)이 아니라 dividual(디비주얼)¹⁾, 즉 정보화되어 분리할 수 있는 신체로 변환된다. 사람의 몸에서 수집되는 모든 움직임, 생리적 반응, 감정 변화 등이 데이터로 축적되어 다양한 기업들이 이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1) 출처: 백옥인. (2021). 바이러스와 인공지능이 만날 때: 팬데믹 시대의 기계적 노예화와 사회적 복종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06호: 77-95.

다. 청년들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의 데이터를 제공하며, 그 수익의 일부가 자동으로 그들에게 분배된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돈을 벌었지만, 2050년에는 몸 자체가 경제적 자원이다. 청년들은 일하고 있다는 자각 없이, 그들의 몸의 움직임과 생체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해 얻은 수익을 나눠 받는다. 몸의 데이터가 일의 가치로 변환된다.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로 불릴 만큼 중요한 경제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들은 개인의 소비 패턴, 온라인 활동,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나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글 애드센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사용자들의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 일부를 사용자에게 배분한다.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기여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탈중앙화 금융(DeFi) 모델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스텝(StepN)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걸음 수를 기반으로 보상하며, 헬륨(Helium) 네트워크는 이용자가 주변의 IoT 기기들에게 인터넷을 연결해주고 데이터를 공유하면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는 구조다. 블록체인 기반 보상 시스템은 사람들이 자신이 제공한 데이터나 기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미래에 청년들은 자신의 몸 데이터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돈을 벌 수 있다면 미래의 일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 미래 이슈⑦ 2050년, 사람들은 다양한 이동형 주거 플랫폼에서 살아간다

과거에는 집값 상승, 도시 밀집, 교통 혼잡 등이 불편한 현실이었지만, 2050년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플랫폼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바다, 산, 도심을 자유롭게 선택해 주거지를 이동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특정 장소에 묶여 살지 않고, 주거 환경은 이동성과 적응성의 개념으로 변화한다.

자율 주행 기술이 이동형 주택과 결합되어, 사람들이 집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며 생활하는 주거 환경이 가능하다. 모듈러 주택도 이동성과 유연성을 강조한다. 캐나다의 Nomad Micro Homes와 같은 기업들은 이동 가능한 주택을 판매한다. Tiny House Movement는 작은 집을 바퀴로 이동시키며 다양한 장소에서 생활하는 것을 장려한다. 모듈러 주택과 이동형 주택의 발전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선택하도록 하며 이동형 주거 플랫폼으로 보편화될 수 있다.

기후 변화로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해상 도시와 떠다니는 주거지가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로테르담시는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35년 물의 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제방을 높여 물을 막는 방식이 아니라 물과 함께 공존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강 수면은 새로운 수상 주거지의 주소지가 되고, 이를 둘러싼 제방은 산책로 역할을 한다. 공동주택의 중정은 물을 담는 저장고 역할을 하고, 하수처리장과 같은 인프라가 어린이 놀이터가 된다.

자립형 주거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집이 특정 위치에 고정되지 않아도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저장 시스템, 자립형 물 처리 시스템 등은 이동형 주택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Tesla Powerwall 시스템은 주택이 고정된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다.

■ 미래 이슈⑧ 2050년, 일부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는 인공지능에 의해 이루어지고, 시민은 인공지능이 결정한 후보에 동의하는 버튼만 누른다

2050년 일부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가 인공지능에 의해 결정된다. AI는 후보자들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들의 능력, 공약, 윤리성 등을 평가하여 최적의 후보를 선택한다. 시민들은 후보자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 AI가 결정한 후보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단순한 버튼을 누르는 역할만 한다.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구조가 급변해 유권자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효율성을 극도로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알고리즘 기반 신용 평가, 의료 진단, 법률 분석 등에서 AI가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인공지능이 정치 분야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정 후보자의 역량, 정책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미 선거에서 AI가 여론을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데 활용된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²⁾처럼 AI와 데이터 분석이 선거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IBM의 왓슨(Watson) 같은 AI 시스템은 정치 캠페인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권자의 성향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선거 부정, 선거 비용, 정치적 대립 등으로 많은 사람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요구한다. 특히,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줄이는 AI 기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 대립을 줄이고, 더욱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요구가 커지면서 AI가 대안을 제시하고, 선거의 복잡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 미래 이슈⑨ 2050년 미국과 중국은 군사, 경제, 기술 경쟁을 하지 않는다. 대신 인류의 ‘운명 관리 경쟁’을 시작했다

과거에는 두 강대국이 군사력과 경제력, 기술 혁신으로 세계 패권을 다퉈지만, 2050년에는 그 경쟁이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바뀐다. 미국과 중국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최적의 모델을 제시하고, 각각의 방식으로 인류의 운명을 관리하려는 경쟁에 돌입한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데이터 통제 기술을 이용해 두 나라는 인류의 삶과 행동, 결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과시한다. 두 강대국은 더 효율적으로 인류의 삶을 제어하고 번영하게 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경쟁하며, 다른 나라는 두 국가가 제시하는 생존과 번영 모델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

전통적인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이념 싸움은 과거의 일이다. 2050년에는 두 강대국이 서로 다른

2)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 유출 사건은 2016년 초에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회사가 수백만 페이스북 가입자의 프로필을 그들의 동의없이 수거해서 정치적 선전을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진 사건을 말한다(위키백과).

운명 관리 메커니즘을 제시하며, 누구의 시스템이 더 인류의 운명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경쟁한다.

현재 중국은 사회 신용 시스템(Social Credit System)을 통해 시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개인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정 행동에 따라 보상 또는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국에서도 대규모 데이터 수집 및 감시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 통제 및 감시 시스템이 점차 발전하면서, 두 강대국이 데이터를 통해 인류의 행동과 결정을 통제하려는 경쟁이 가능해 보인다.

CRISPR-Cas9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유전자 편집 연구에 적극적이며, 미국도 이러한 기술을 통해 생명공학적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문제에서도 두 강대국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기후 변화로 자연 재해와 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다. 두 나라는 에너지 혁신, 자원 관리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향후 세계를 주도할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 미래 이슈⑩ 2050년, 지구 궤도가 쓰레기로 가득 차 인류가 더 이상 우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과거에는 우주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개척지로 여겨졌지만, 2050년이 되면 지구 궤도와 근지구 우주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우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위성 파편, 폐기된 우주선 조각, 미세한 쓰레기들이 우주 공간을 뒤덮어 인류가 더 이상 안전하게 우주를 탐험하거나 개발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지구 궤도에는 약 30,000개 이상의 추적 가능한 우주 파편이 있으며,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위성, 로켓 발사 후 남은 파편, 오래된 우주선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외에도 수백만 개의 작은 미세 파편들이 궤도를 떠돌고 있어 우주 탐사와 위성 운용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파편들이 점차 축적되면서, 2050년에는 지구 궤도가 쓰레기로 포화되어 우주로 나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충돌 사고로 인한 파편들이 더욱 많은 쓰레기를 생성하는 케슬러 증후군(Kessler Syndrome)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우주 공간이 더 위험해진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수만 개의 소형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원웹(OneWeb), 아마존의 쿠이퍼(Kuiper) 등 다른 회사들도 수천 개의 위성을 발사하려고 한다. 지구 궤도 상의 위성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만큼 충돌의 위험성도 커지는데, 2009년 미국의 이리듐 33(Iridium 33) 위성과의 비활성 위성 코스모스 2251(Cosmos 2251)이 시베리아 상공에서 충돌한 사고가 그 예다. 이 사고로 수천 개의 파편이 발생했다. 더 많은 위성과의 우주 쓰레기가 지구 궤도에 쌓일수록 이러한 충돌 사고는 증가하고, 우주 쓰레기 폭발적 증가와 함께 우주 공간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우주는 기회의 공간이 아니라 위험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현재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예를 들어, ESA(유럽우주국)은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클리어스페이스(ClearSpace)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주 쓰레기를 회수하거나 태워 없애는 데 드는 비용이 매우 높아, 상용화도 멀어 보인다. 우주 쓰레기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제적 규제나 강제적 협약도 없다. 우주 개발을 위한 법적 틀이 부족하고, 국가 간의 경쟁이 우선시되면서 각국은 여전히 대규모 위성을 발사하는 데만 집중한다.

3. 이머징 이슈들이 촉발하는 새로운 미래 트렌드

위에서 언급한 10개의 이머징 이슈를 융합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현재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거대한 트렌드들이 변화의 과정에 있음을 전망할 수 있다.

1) 인류 중심적 사고에서 인공지능 중심의 사고로 전환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다루고, 결정을 대신하는 기술 중심의 사회로 변환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아이의 감정을 이해한다거나 인공지능에 의해 대통령 선출, 또는 청년들이 자신이 일하는지도 모르게 일한다는 이머징 이슈가 결합되면 인간의 감정, 노동, 정치적 선택 등이 기술에 의해 자동화되고 관리되는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 사람들의 의식적인 선택이나 결정의 역할은 축소되고, 기술이 중요한 결정들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인간의 통제력은 더 감소하고, 기술적 의존도가 증가한다.

2) 전통적 사회 조직의 붕괴와 새로운 사회 계약 시스템의 등장

가족, 교육, 주거 등 전통적인 사회 구조가 변형될 수 있다. 가족 대신 감정적 계약 시스템의 등장이나 전통적 학교가 사라진다는 이슈, 이동형 주거 플랫폼 이슈가 서로 결합하면, 전통적인 가족, 교육, 주거 모델이 무너지거나 변형되고, 개인의 감정적, 학습적, 주거적 필요에 맞춘 맞춤형 시스템이 대두된다. 그 결과, 가족과 교육의 개념은 유연해지고, 감정과 지식의 맞춤형 계약이 사회의 중심이 된다. 이는 개인이 더 이상 특정 사회적 틀에 구속되지 않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삶을 꾸리게 만드는 변화로 이어진다.

3)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새로운 생존 전략의 부각

기후 변화로 극단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적응 및 생존 방식이 등장할 것이다. 극한 기후에 따른 의류 기술의 변화나 도시 골목의 재야생화, 우주 쓰레기 증가 이슈 등이 결합하면, 인간은 극단적인 기후 변화와 환경적 위협에 적응해야 하며, 새로운 도시와 우주 생태계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후 변화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류는 기후 적응 기술 및 자연과의 공생을 통해 도시와 생활 방식을 재구성하게 된다. 우주 쓰레기 문제로 우주로 나아가려는 시도가 한계에 부딪히며, 지구와 우주 환경 모두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이 요구된다.

4) 전통적 권력 구조의 붕괴

전통적인 국가 간 경쟁이 사라지고, 새로운 권력 구조가 부상하며 인류의 운명을 통제하려는 경쟁이 벌어진다. 미국과 중국이 인류의 운명 관리 경쟁을 벌인다는 이슈와 인공지능에 의한 대통령 선거라는 이슈가 결합하면, 군사적, 경제적 경쟁을 넘어 인류의 운명을 누가 더 잘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기술적 통제력과 인류의 생존 관리 능력이 새로운 경쟁의 중심이 된다. 인공지능이 주요한 정치적, 사회적 결정에 참여하면서, 권력의 개념은 사람들의 통제가 아닌 시스템의 통제로 변모할 수 있다.

이같은 트렌드의 변화는 인간의 자율성과 통제력이 점점 줄어들고, 기술과 시스템이 사회를 지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기존의 사회적 질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4. 교회가 선도적으로 해야 할 일

미래는 하나의 고정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품은 시나리오의 집합체이다. 우리가 어떤 변화의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동시에 현재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변화의 충격과 저항을 고려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1) 다중 시나리오에 대한 유연한 대응

교회는 미래가 단일한 길이 아닌 다양한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단순히 한 가지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미래 시나리오에서 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미래에 맞춰 신앙적, 사회적,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예컨대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시나리오와 기후 변화로 극단적인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시나리오에 각각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2) 현재 문제의 심층적 분석과 신중한 변화 시도

교회는 큰 변화를 시도하기 전, 시범 프로젝트나 실험적 접근을 통해 변화의 효과를 검토하고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변화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고, 신앙 공동체 내에서 점차 변화를 도입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교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저항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저항을 감안하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교회가 왜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3) 변형과 보존 사이의 균형

교회는 변형사회와 보존사회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보존할 가치와 변화해야 할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 전통적인 신앙과 가르침을 보존하면서도 사회적 변화와 기술적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교회는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역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적 변화 속에서 신앙 공동체의 새로운 형태를 실험하거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생태적 책임을 교회가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5. 2050년 교회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이머징 이슈

■ 2050년,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전 세계인의 행동, 감정, 일상 생활, 욕구, 정신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 거대한 영적 산업을 주도한다.

※ 이상으로 발제를 마칩니다. 흥미로운 토론을 기대합니다.

주제발표2

2050 한국교회 전망과 새로운 교육 비전

박상진 교수(장신대 명예교수, 한동대 석좌교수)

I. 들어가는 말: ‘성장하는 교회’에서 ‘수축하는 교회’로

2050년의 한국교회, 어떤 모습일까? 2050년의 한국교회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연속선상에 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한 해 한 해 변화해 가면서 2050년의 한국교회를 형성하게 된다. 물론 오늘의 한국교회는 과거 한국교회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지난 140년의 한국교회 역사의 결과로 오늘의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50년의 한국교회는 오늘의 교회 현실과 전혀 관계없이 ‘하늘’로부터 도래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앞으로 25여 년을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의 2050년의 한국교회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2050년의 한국교회는 과거나 현재의 한국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다. 적어도 1884년 알렌 선교사의 입국으로부터 한국의 개신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한국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가 있다면 ‘성장’일 것이다. 교회들이 개척되고, 전국 곳곳에 기독교학교와 병원들이 설립되었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거치면서 소위 ‘영적 부흥’을 경험하면서 성장은 가속도가 붙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이러한 성장은 멈추지 않았고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도 성장은 계속되었다. 특히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라고 불리는 세대의 등장으로 1970-80년대 교회학교가 급성장하였고 도시화에 맞춘 교회개척 운동과 대규모 전도집회, 다양한 선교단체의 활약으로 2010년 전후까지 한국교회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교회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한국교회는 ‘수축’과 ‘축소’를 경험하고 있다. 더 이상 ‘팽창’ ‘성장’ ‘확장’ ‘배가’ 등의 단어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는 ‘감소’ ‘소멸’ ‘폐교’ ‘통폐합’ ‘존속’ ‘생존’ ‘지속가능성’ 등에 관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교단과 관계없이 교인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가 절반이 안 된다. 마치 지역마다 학교가 폐교되듯이 교회학교도 폐교되고 있다.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 부서를 통합하고 있는데 이는 한 부서가 소멸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수축의 시대를 맞이한 한국교회가 전망하는 2050년은 성장시대에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요청된다. 이 글은 수축과 축소의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교회가 2050년을 전망하며 어떻게 그 미래를 응전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II. 통계로 보는 2050 한국교회 전망과 분석

2050년의 한국교회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의 추정이나 아니라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추이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공식적인 자료이면서 가능한 한 최근의 통계치를 중심으로 2050년 한국교회를 전망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전체적인 한국의 2050 인구 추계를 분석하고, 2050 기독교 인구의 추이를 파악하며, 특히 2050

한국교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다음세대 신앙계승의 위기, 급격한 노령화, 그리고 대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1. 한국의 2050 인구 추계

2050년을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일 것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의 전체 수와 연령별 인구수에 따라서 그 사회의 특성이 달라지고, 경제, 산업, 교육 등 제 분야에 다른 영향이 미쳐지게 된다. 미래 사회의 인구를 예측하는 장래인구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인구는 4천7백만명이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0.07%로서 거의 성장이 멈춘 상태이고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2050년에는 인구성장률이 -0.82%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2백만명인 것에 비해서 5백만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구성장률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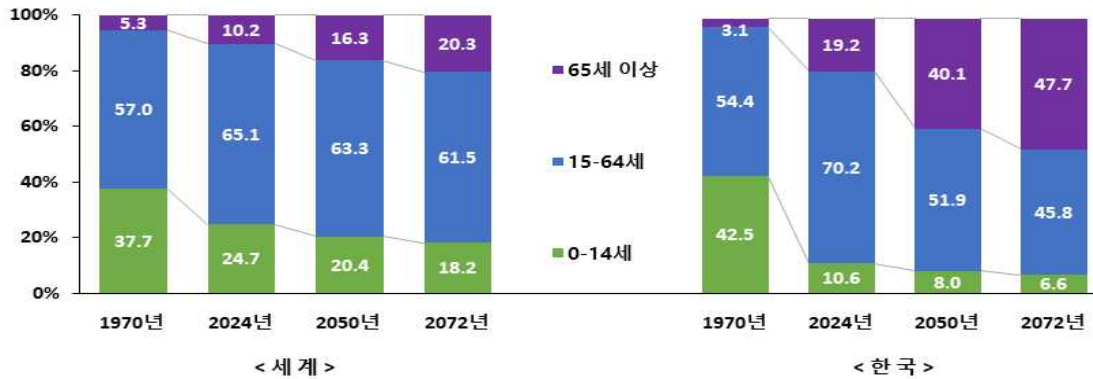
[그림1] 세계와 한국의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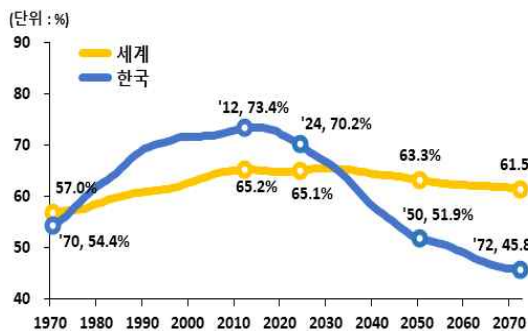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4. 9.

이러한 우리나라의 인구 동향은 세계의 인구 추이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대조적이다. 2024년 현재 세계 인구는 81.6억명인데 오는 2050년에는 96.6억명으로 증가하여 15억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구증가률로 보면 향후 26년 사이에 무려 18.38%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같은 기간 동안 인구 증가의 비율이 -10.64%로서 인구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구 추이와 세계 인구 추이는 크게 다르고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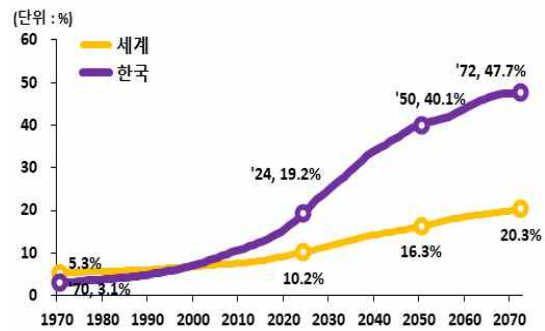
[그림2]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³⁾



[그림3]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그림4]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미래 인구 동향 분석에 있어서 인구 총수의 변화와 함께 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도 중요하게 다룬다. 왜냐하면 연령별 인구 분포가 그 사회의 특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연령별 인구를 구분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분 방식이 유소년인구(0-14세), 생산연령인구(15-64세), 노령인구(65세 이상) 등의 세 개 연령대로 나누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유소년인구는 1970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42.5%를 차지하였는데, 2024년도에는 10.6%까지 감소하였고, 2050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불과 8.0%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70년과 비교하면 그 비율이 5분의 1 보다도 더 낮아진 수치이며, 2024년보다도 2.6% 더 감소한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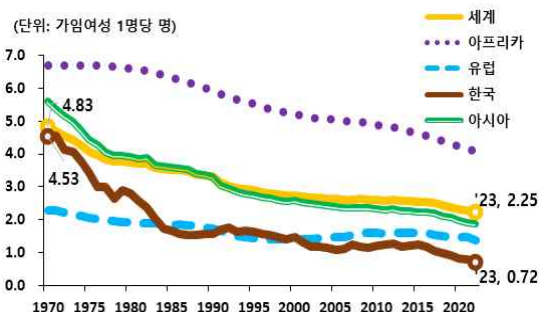
생산연령인구는 2024년 전체 인구의 70.2%를 차지하고 있는데, 2050년에는 51.9%로 낮아져 전체 인구의 약 절반만이 생산연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비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2024년 현재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19.2%인데 2050년에는 40.1%로 늘어나 2배 이상 그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 자료: 통계청,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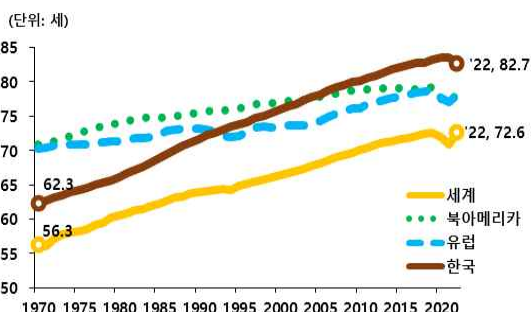
이러한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는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반면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라고 하는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세계 인구 구조의 변화와는 사뭇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는데, 세계 인구 중 유소년인구의 비율은 2024년 24.7%에서 2050년 20.4%로,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은 65.1%에서 63.3%로 소폭 감소하였고, 그리고 노령인구가 10.2%에서 16.3%로 소폭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무엇보다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1970년 4.53명인 것과 비교해 볼 때 3.81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세계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2.25명으로 1970년 4.83명에 비해 2.58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출산율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2050년 유소년인구 및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라는 결과로 예측되고 있다. 기대수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 82.7세인데, 이는 1970년 62.3세인 것에 비해 20.5세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비해 세계의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72.6세인데, 이는 1970년 56.3세에 비해 16.4세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 우리나라의 노령인구의 비율은 세계 평균 노령인구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5] 세계와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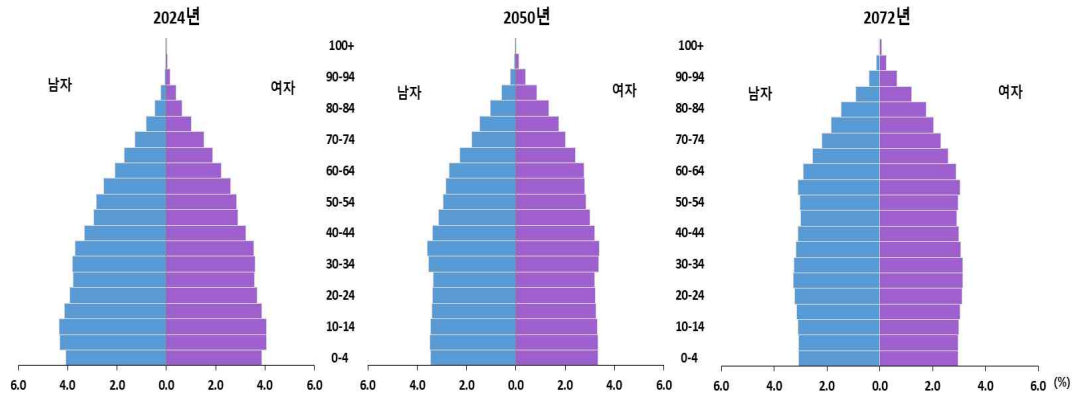


[그림6] 세계와 한국의 기대수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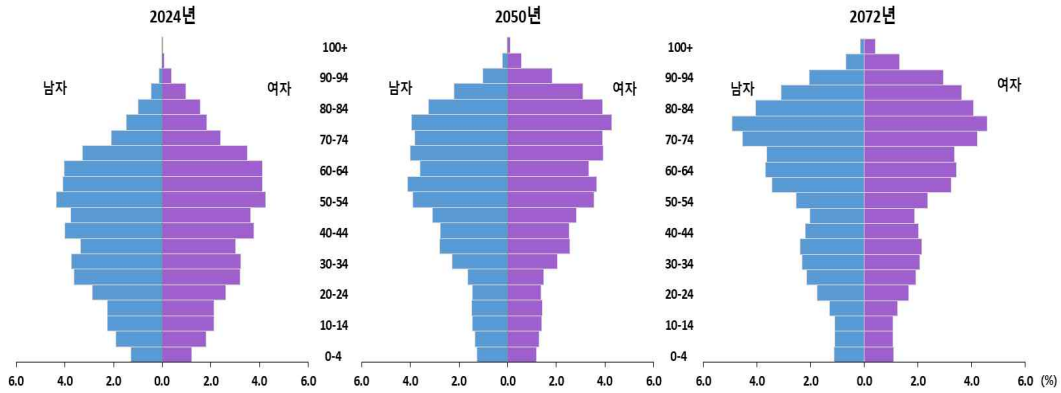


인구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눈으로 파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인구 피라미드이다. 인구 피라미드는 연령별로 인구 구성비를 피라미드 형태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식인데 전형적인 인구 증가 구조인 피라미드형 외에 역피라미드형, 완만한 증가를 보이는 중형, 인구 감소를 보여주는 항아리형, 심각한 노령화 현상을 보여주는 꽃병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림 7] 세계와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⁴⁾
 < 세 계 >



< 한 국 >



자료: 통계청,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4. 9.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1970년대의 피라미드형을 거쳐 2024년에는 항아리형을 나타내 보이고 있고, 2050년에는 노령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꽃병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대로 지속된다면 2072년에는 거의 역피라미드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⁵⁾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2050년의 한국교회 교인수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독교인의 인구구조도 기본적으로는 전체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틀 안에서 증감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의 2050 기독교 인구 추계

2050년 한국교회의 교인수는 어느 정도일까? 여기에서는 세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2050 기독교 인구를 전망해 보려고 한다. 첫째는 목회데이터연구소의 ‘한국 기독교 장래인구 추계(2050)’이며, 둘째는 최윤식의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이며, 셋째는 한국교회

4) 총인구에 대한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이용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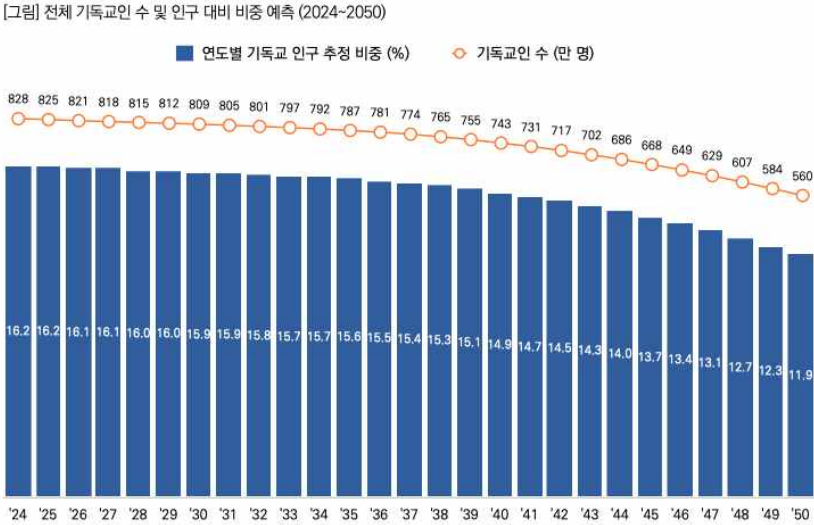
5) <https://sgis.kostat.go.kr/jsp/pyramid/pyramid1.jsp>

의 한 교단의 교세 추이 자료이다.

1) 목회데이터연구소의 ‘한국 기독교 장래인구 추계(2050)’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한국 기독교 장래인구 추계(2050)’를 발표하였다. 이는 2050년 한국교회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⁶⁾ 이 자료는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협력하여 주요 교단의 지난 20년 교세통계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계조사 전문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과 연세대학교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에 의뢰하여 분석, 도출되었다. 이 통계는 현재의 한국교회가 놓여있는 ‘조건과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것으로서, 그러한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킨다면 얼마든지 미래의 변화가 가능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 기독교 장래 인구 추계(2050)’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직시하고 어떤 변화가 요청되는지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그림8] 전체 기독교인 수 및 인구대비 비중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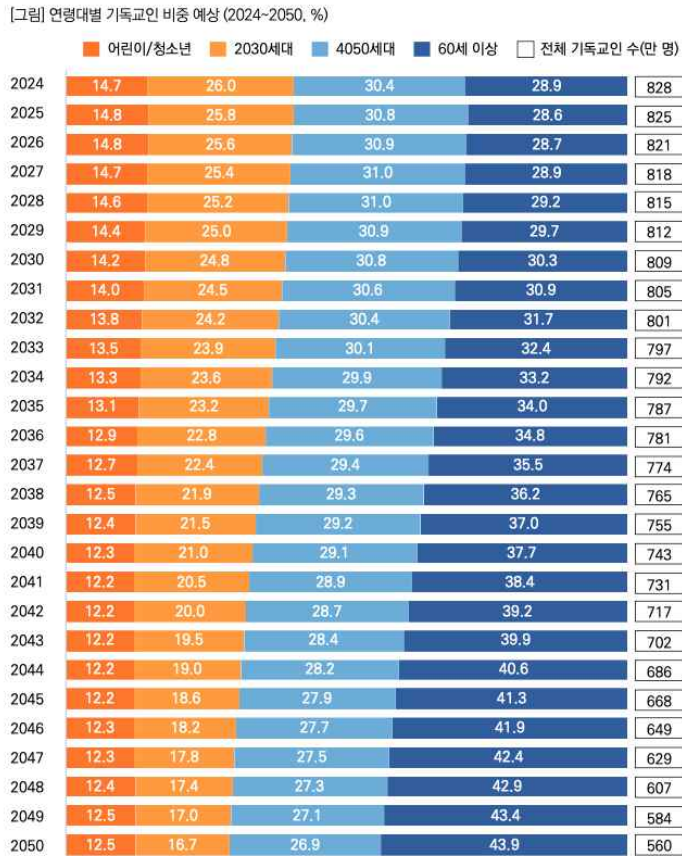
자료: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 기독교 장래인구 추계(2050)’, <넘버즈 리포트 255호>, 2024. 9.

먼저 전체 기독교인 수의 추이를 분석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기독교인의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4년 현재 기독교인 수는 828만명으로서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560만명으로 줄어들어 전체 인구의 11.9%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4년부터 매년 3만명 또는 4만명 정도의 감소를 보이다가 10년 후부터 점차 그 폭이 증가하여 2038년 이후에는 매년 10만명 이상 감소하며, 2046년 이후에는 20만명 이상 급감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감소율로도 파악되는데 2025년 이후 0.4~0.5% 비율로 감소하다가 2038년부터는 감소율이 1%대로

6)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리포트 255호>, 2024. 9. 10.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307

별어지고, 2043년 2%대, 2047년에 접어들면 3%대까지 그 감소의 폭이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전체 기독교인 수의 감소는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겠지만, 전체 인구 중 기독교인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단지 인구 감소 요인만이 아닌 탈종교, 탈기독교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9] 연령대별 기독교인 비중 예상



자료: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 기독교 장래인구 추계(2050)’, 〈넘버즈 리포트 255호〉, 2024. 9.

2024년 이후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기독교인 수가 감소하는데, 연령대별로 기독교인 수를 파악해 보면 그 변화의 양상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위의 도표는 기독교인의 전 연령을 어린이/청소년, 2030세대, 4050세대, 60세 이상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그 추이를 나타낸 도표이다. 어린이/청소년은 0-19세에 이르는 ‘자라나는 세대’로서 2024년 14.7%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약간씩 감소하여 2050년에는 12.5%를 나타내고 있다. 2030세대는 20-39세에 이르는 청년세대로서 2024년에는 26%를 차지하였는데,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16.7%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교인 중의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10% 가까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감소현상이 아닐 수 없다. 4050세대는 40-59세에 해당하는 연령대로서 2024년 전체 기독교인 인구 중 30.4%를 차지하였는데, 그 비율이 약간씩 감소하여 2050년에는 2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연령층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이다. 이들 연령층 기독교인 비율은 2024년 28.9%인데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여 2050년에는 43.9%에 이르게 된다. 이는 전체 기독교인 중에 차지하는 비율로도 15%가 증가한 것으로 고령교인의 수가 엄청난 비중으로 늘어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대별 구성비율의 변화는 전체적인 기독교인 감소 추세 중에서도 어린이/청소년 및 4050세대의 감소, 2030세대의 격감,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세대의 급증이라는 특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최윤식의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

미래학자 최윤식은 그의 책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에서 2050년의 한국교회를 좀 더 비관적으로 전망한다. 그는 먼저 한국교회의 과거를 정리하면서 한국교회는 140년 역사 속에서 세 번의 대부흥기를 경험했다고 보았다. 첫 번째는 평양대부흥운동을 중심으로 한 ‘사도행전 부흥기’였는데, 그 특징을 열정적인 성경읽기로 보았다. 두 번째 부흥기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북쪽의 강력한 신앙 열정이 남쪽으로 전수되는 것과 함께, 성령사역과 부흥회, 기도원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남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세 번째 부흥기는 베이비부머 세대 등장과 인구성장의 시기, 경제부흥의 시기인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기간에 일어난 부흥을 들고 있는데, 빌리 그래함의 전도집회 같은 대중집회가 중심이 되어 양적 부흥이 일어났다고 보았다.⁷⁾

그런데 한국교회는 2010년을 전후해서 교인수 감소가 시작되었는데,⁸⁾ 저자 최윤식은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이단과 무신론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50년이면, 한국 기독교(이단 제외)의 총인구는 402만 4,931명까지 감소한다. 2015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다. 전체 인구의 9.09%다. 만약 기독교 총인구에서 가나안 성도(2023년 29.3%를 그대로 반영하면 117만9,032명)를 제외하면, 실제 출석 교인수는 300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284만 5,899명으로 줄어든다. 한국 사회 전체 인구의 6.43%다. 반면, 2050년 한국 사회에서 무신론자는 76.77%에 달한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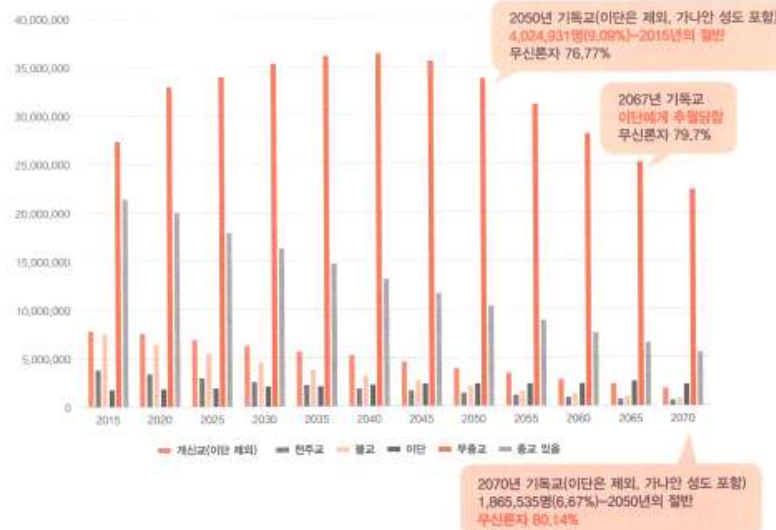
7) 최윤식, 『2050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3), 6-7.

8) 한국교회 총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시점으로는 예장합신 2009년, 기성은 2011년, 감리회는 2009년, 예장통합은 2010년, 예장합동은 2012년 각각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9) 위의 책, 18-19.

[그림10] 한국 사회 무종교, 종교인별 총인구 변화

Ⅰ 2015~2070년, 한국 사회 무종교, 종교인별 총인구 변화 Ⅰ



자료: 최윤식, 『2050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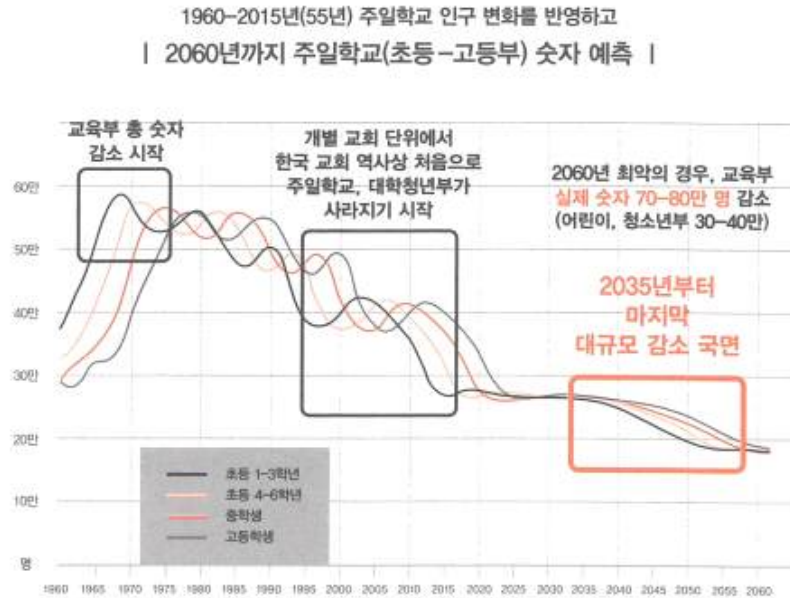
최윤식은 향후 한국교회는 두 차례에 걸친 부흥의 기회가 있다고 보았는데, 바로 제4차 부흥과 5차 부흥이다. 제4차 부흥은 예배와 교회 사역의 회복과 복음의 본질 회복을 통한 부흥으로서 대사회적 능력을 회복함으로서 부흥을 가능케 한다고 보았다. 이 때에는 세 가지 교회 형태가 존재하게 되는데, 소멸하는 교회, 재부흥하는 교회,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이다.¹⁰⁾ 즉, 한 쪽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고 소멸해 가지만 다시금 재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들이 새로운 부흥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4차 부흥의 핵심으로 그는 교육부의 부흥을 들고 있다. 특히 제4차 부흥에 있어서 세 그룹의 세대가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20-39세(MZ세대), 0-19세(메타세대), 앞으로 20년 동안 태어날 미래세대(A세대: 인공지능세대) 등이다. 이 중 메타세대는 현재 교육부에 속해 있는 세대이며, 20-39세(MZ세대)는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A세대)의 부모들이며, 20년후의 한국교회 중심이 될 40-60세가 되는 세대이다. 소멸하는 교회는 이 3세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사라지게 된다고 보았고, 재부흥하는 교회,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는 이 3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을 주도하게 된다고 보았다.¹¹⁾ 그리고 한국교회 마지막 부흥의 기회는 남북 통일을 계기로 일어나는 교회부흥으로서 이를 제5차 부흥으로 부르고 있다.

10) 위의 책, 111-112.

11) 위의 책, 225.

[그림11] 2060년까지 주일학교 숫자 예측



자료: 최윤식, 『2050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 224.

3) 한국교회의 한 교단(예장통합)의 교세 추이 자료

2050년 한국교회를 전망함에 있어서 교단의 교세통계는 실제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통계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교단마다 교인수의 규모나 증감의 정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교인수 추이의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 교단(예장통합)의 교세 통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난 10년 간의 교세 통계 변동 현황은 향후 변화의 추이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지난 10년 간(2013-2022년)의 교회수, 목사수, 교인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1] 2013-2022 주요 교세통계 변동 현황(예장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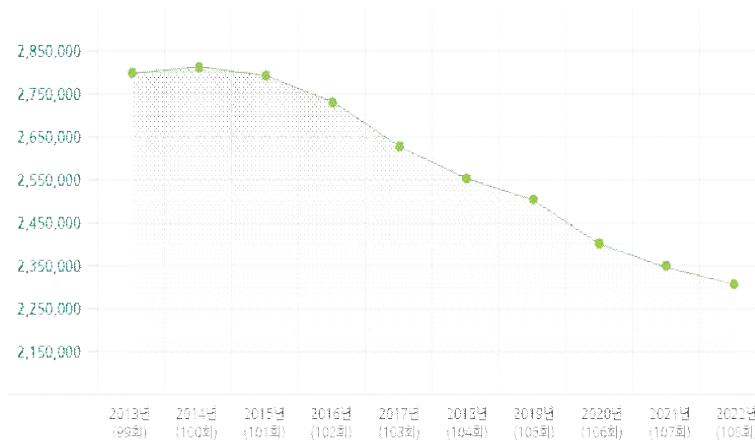
주요 교세통계 변동 현황			
연도(항목)	교회수	목사수	전체교인수
2013년	8,592	17,468	2,808,912
2014년	8,731	18,121	2,810,574
2015년	8,843	18,699	2,789,102
2016년	8,984	19,067	2,730,900
2017년	9,096	19,832	2,627,696
2018년	9,190	20,506	2,554,227
2019년	9,288	20,775	2,506,985

2020년	9,341	21,050	2,392,919
2021년	9,421	21,423	2,358,914
2022년	9,476	22,180	2,302,682

자료: 총회(예장통합), 교세현황, 2023.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예장통합 교단의 교회수는 지난 2013년에 8,592개 교회였는데 2022년까지 9,476개 교회로 884개 교회가 늘어나서 10.3%의 증가율을 보였다. 목사수도 2013년에는 17,468명이었는데 10년 사이에 27.0%에 해당하는 4,712명이 증가하여 2022년에는 22,180명이 되었다. 그러나 교인수는 2013년 280만명이었는데 10년 사이에 50만명 이상이 감소하여 230만명으로 줄어들어서 18.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교인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12] 교인수 추이(2013-2022, 예장통합)



자료: 총회(예장통합), 교세현황, 2023.

교인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심각한 하향 곡선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고 하면 2050년의 교인수는 지금보다 크게 감소한 모습일 것이다. 해당 교단 통계위원회는 이러한 교인수 추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33년까지 향후 10년의 교인수 추이를 예측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의 도표와 같다.

[표2] 2013-2033 교인수 추이(예장통합)

최근 10년간 전체교인수 기반으로 2033년까지 전체교인수 예측 * 전체교인수 10년간 데이터와 AAA 버전의 ETS(지수 평활법) 알고리즘 사용 / 예측시작(2023년), 예측종료(2033), 신뢰구간(95%).				
년도	전체교인수	예측	낮은 신뢰한계	높은 신뢰한계
2013	2,808,912			
2014	2,810,574			
2015	2,789,102			
2016	2,730,900			
2017	2,627,696			
2018	2,554,227			
2019	2,506,985			
2020	2,392,919			
2021	2,358,914			
2022	2,301,153	2,301,153	2,301,153	2,301,153
2023		2,237,042	2,170,038	2,304,046
2024		2,173,731	2,083,541	2,263,920
2025		2,110,419	2,001,852	2,218,987
2026		2,047,108	1,922,819	2,171,397
2027		1,983,797	1,845,534	2,122,060
2028		1,920,486	1,769,510	2,071,462
2029		1,857,174	1,694,451	2,019,898
2030		1,793,863	1,620,161	1,967,565
2031		1,730,552	1,546,504	1,914,600
2032		1,667,241	1,473,376	1,861,105
2033		1,603,929	1,400,702	1,807,156

자료: 총회(예장통합), 교세현황, 2023.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33년의 교인수 예측치는 160만명 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1년 사이에 69만9천명이 감소한 수치로서 2022년보다 3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더 낮게 전망되는 시나리오에 의하면 2033년 교인수가 140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무려 90만명이 감소하여 2022년보다 39.2%가 감소한 수치이다. 평균 값으로 계산하더라도 2024년의 예상 교인수 217만명에서 2033년의 예상 교인수 160만명으로 감소한 것은 26.2%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의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연령대별 기독교인 비중 예상(2024-2050)’의 감소율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 도표에 따르면 2024년 한국교회 전체교인수는 828만명인데 2033년에는 797만명으로 감소하여 3.7%의 감소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율에 있어서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또한 교회수와 목사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교인수가 크게 감소한다는 것은 교회당 교인수가 크게 줄 수밖에 없고, 목사 1인당 교인수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음을 예견

할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자립교회가 줄어들고 목사의 이중직 문제라든지 목회자의 생계나 복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2022년 기준) 한국교회(예장통합)의 교회당 교인수 분포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표3] 교인수 구간별 교회수(2022, 예장통합)

각 구간별 교회 비율표(전체교인수 기준)				
전체교인수 구간	교회수	비율(%)	누계 비율(%)	교회 누계
00~15	1,380	14.56%	14.56%	1,380
16~30	2,245	23.69%	38.25%	3,625
31~50	1,540	16.25%	54.51%	5,165
51~100	1,449	15.29%	69.80%	6,614
101~200	1,181	12.46%	82.26%	7,795
201~300	477	5.03%	87.29%	8,272
301~400	238	2.51%	89.81%	8,510
401~500	169	1.78%	91.59%	8,679
501~1000	412	4.35%	95.94%	9,091
1,001~1,500	134	1.41%	97.35%	9,225
1,501~2,000	72	0.76%	98.11%	9,297
2,001~2,500	49	0.52%	98.63%	9,346
2,501~3,000	35	0.37%	99.00%	9,381
3,001~3,500	21	0.22%	99.22%	9,402
3,501~4,000	13	0.14%	99.36%	9,415
4,001~4,500	8	0.08%	99.44%	9,423
4,501~5,000	11	0.12%	99.56%	9,434
5,001~5,500	2	0.02%	99.58%	9,436
5,501~6,500	10	0.11%	99.68%	9,446
6,501~7,500	1	0.01%	99.69%	9,447
7,501~8,500	5	0.05%	99.75%	9,452
8,501~9,500	4	0.04%	99.79%	9,456
9,501~10,000	3	0.03%	99.82%	9,459
10,001 이상	17	0.18%	100%	9,476
합계	9,476	100%		

자료: 총회(예장통합), 교세현황, 2023.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교단의 예이기는 하지만 이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면 한국교회의 50%가 50명 이하 교인수 교회이며, 70%가 100명 이하, 80%가 200명

이하, 90%가 400명 이하 교인수 교회임을 알 수 있다. 1000명 이상 교인이 속한 교회는 상위 5%가 안 되며, 3000명 이상 교인 교회는 전체 교회의 불과 1% 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는 소규모 교회임을 알 수 있는데 교인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교회의 규모도 더 작아지고 소규모 교회의 비중도 더 높아질 가능성을 예견하게 한다.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미 축소 교회를 경험하고 있고, 향후에는 축소 교회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축소의 정도도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다음세대 신앙계승의 위기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인구로서 6-21세를 의미한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의 학령인구는 1,260만명이었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782만명으로 감소하였다. 학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70년 39.1%에서 계속 감소하여 2020년에는 15.1%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향후에도 지속되어 2050년에는 564만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1.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13] 학령인구 추이(1970-2060)



앞에서 살펴본 ‘연령별 기독교인 비중 예상(2020-2050년)’에 따르면, 2050년 한국교회 교인수 추이는 다음세대(0-30세)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분석을 요청하고 있다. 다음세대는 0-19세의 어린이/청소년 세대와 20-30세의 청년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다음세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을 살펴보면, 2024년 현재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은 122만명인데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7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 수의 57%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을 0-9세와 10-19세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10-19세의 감소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4년 현재 0-9세 기독교인은 전체 기독교인의 6.4%인데 2050년에는 6.0%로 낮아지는 반면 10-19세 기독교인은 2024년 현재 전체 기독교인의 8.3%인데 2050년에는 6.5%로 낮아져 그 감소폭이 1.8%로서 0-9세 감소폭(0.4%)보다 훨씬 큰 편이다.

[그림14] 전체 기독교인 대비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 수 및 비중(2024-2050)

[그림] 전체 기독교인 대비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 비중 및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청년 세대인 2030세대 기독교인 수는 2024년 현재 215만명인데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94만명으로서 절반 이하(44%)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30세대도 20대와 30대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20대는 2024년 현재 전체 기독교인의 11.1%를 차지하는데 2050년에는 6.8%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30대는 2024년 전체 기독교인의 14.9%를 차지하는데 2050년에는 9.9%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30대가 상대적으로 그 감소폭(5.0%)이 20대(4.3%)보다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15] 전체 기독교인 대비 2030 기독교인 수 및 비중(2024-2050)

[그림] 전체 기독교인 대비 2030 기독교인 비중 및 2030 기독교인 수 예상 (2024-2050)



보다 직접적으로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는 교회학교 학생 수 통계이다. 교회학교 학생 수는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가? 필자가 속해 있는 교단인 예장(통합)의 경우 2020년 기준 교세통계를 보면 교회학교 거의 모든 부서가 감소하였는데, 소년부의 경우, 지난 10년 사이에 43.0%나 감소하였다. 장로교 통합 교단의 지난 10년간의 교회학교 학생수

추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 2013-2022 교회학교 통계 변동 현황(예장통합)

교회학교 통계 변동 현황							
연도(항목)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2013년	17,101	21,555	58,293	50,840	59,423	68,175	157,409
2014년	17,523	23,323	57,649	51,112	57,880	64,637	152,327
2015년	17,325	22,659	55,435	48,110	55,317	62,358	146,763
2016년	16,403	22,109	52,053	46,020	54,173	56,147	134,904
2017년	19,088	21,604	50,412	45,493	51,803	56,256	126,235
2018년	14,934	20,475	48,101	44,288	50,193	54,687	119,691
2019년	15,206	19,872	45,654	43,461	48,807	52,427	115,025
2020년	12,035	16,530	40,230	38,760	43,737	47,429	109,743
2021년	10,537	14,068	34,520	34,240	39,744	43,212	100,530
2022년	10,206	13,613	32,388	33,371	38,252	42,307	97,739

자료: 총회(예장통합), 교세현황, 2023.

지난 10년동안 예장통합의 경우 교회학교 학생수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영아부 40.3%, 유아부 36.8%, 유치부 44.4%, 유년부 34.4%, 초등부 35.6%, 소년부 37.9%, 중고등부 37.9%로 나타난다. 유치부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그 다음 영아부 순으로 감소하였고, 아동부 3개 부서 가운데는 소년부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중고등부의 감소율도 37.9%로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5] 2013-2022 우리나라 학령인구 추이¹²⁾

연도	계(6-2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013년	9,397	2,783	1,818	1,985	2,811
2014년	9,181	2,751	1,719	1,912	2,799
2015년	8,920	2,720	1,578	1,868	2,755
2016년	8,672	2,688	1,458	1,816	2,710
2017년	8,461	2,719	1,385	1,715	2,642
2018년	8,263	2,756	1,340	1,574	2,593
2019년	8,075	2,766	1,319	1,453	2,537
2020년	7,888	2,724	1,364	1,390	2,410
2021년	7,701	2,720	1,380	1,344	2,257
2022년	7,497	2,701	1,368	1,323	2,105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202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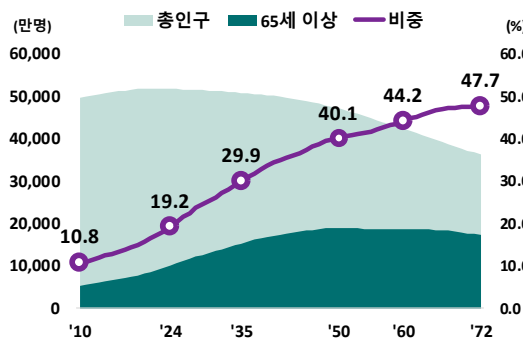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statJipYold=3744&vStatJipYold=5288&listId=A_02&areaId=&areaNm=

그렇다면 같은 연령대의 학령인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사이에 어느 정도 감소하였는가?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령인구의 경우 지난 10년 사이에 불과 2.9%만 감소하였고, 중고등학교 학령인구는 29.2%가 감소하였다. 예상통합 교단의 교회학생수 추이를 학령인구 추이와 비교해보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유,초,소가 각각 유년부 34.4%, 초등부 35.6%, 소년부 37.9% 감소하였으니 2.9%만 감소한 학령인구 감소보다 훨씬 가파른 감소를 한 셈이다. 중고등 학생의 경우에도 교회학교 중고등부 학생수는 37.9%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동일 기간의 학령인구 감소보다 8.7%가 더 감소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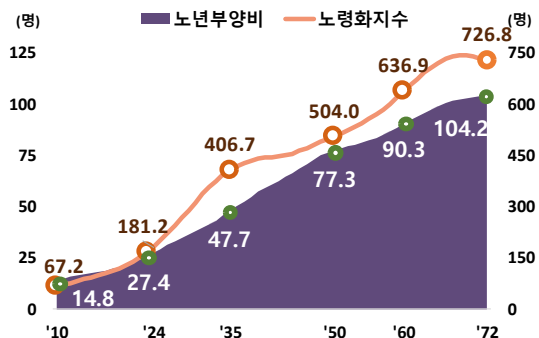
4. 급격한 고령화 현상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993만8천명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한다. 2025년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2050년에는 40.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자연적으로 노년부양비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2024년 27.4명인데 2050년도에는 77.3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만큼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가 몇 명인지를 보여준다. 노령화지수가 100이면 1:1인데, 2024년 현재 181.2이며, 2050년에는 504.0으로 급증하게 된다. 즉,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0-14세의 유소년인구보다 다섯 배 이상 많아진다는 뜻이다.

[그림16]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비중



[그림17]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표6] 고령(65세 이상)인구 추계(2024-2072)

(단위: 천 명, %)

	총인구	65세 이상	비중 ¹⁾	노년부양비 ²⁾	노령화지수 ³⁾
2010	49,554	5,366	10.8	14.8	67.2
2020	51,836	8,152	15.7	21.8	129.3
2024	51,751	9,938	19.2	27.4	181.2
2025	51,685	10,514	20.3	29.3	199.9
2030	51,306	12,980	25.3	38.0	312.0
2035	50,825	15,208	29.9	47.7	406.7
2040	50,059	17,151	34.3	59.1	442.2
2050	47,107	18,908	40.1	77.3	504.0
2060	42,302	18,682	44.2	90.3	636.9
2072	36,222	17,271	47.7	104.2	726.8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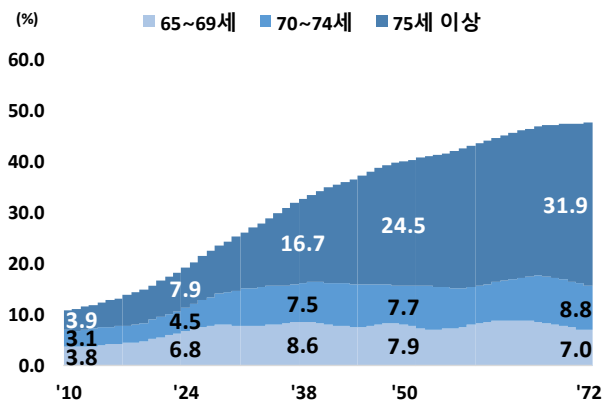
주: 1) 비중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3)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증가 현상 중에서도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연령대별 고령인구 비중이다. 2024년 기준으로 65~69세의 비율이 전체 인구 중 6.8%이고, 70~74세의 비율이 4.5%, 75세 이상이 7.9%인데, 점차 70대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여 2050년에는 75세 이상의 비율이 전체 인구 중 2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연세가 드신 고령인구의 층이 두터워짐을 알 수 있다.

[그림18] 연령대별 고령인구 비중(2022-2072)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한국교회가 고령화되고 있다. 2024년 현재 60세 이상 기독교인이 전체 기독교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9%인데 점차 증가하여

2050년에는 4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의 절반의 기독교인이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로 구성된다는 의미이다. 60세 이상의 기독교인의 수는 240만명인데 2042년에는 281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2050년에는 246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전체 기독교인 수의 감소로 인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60세 이상 노년들을 60대와 70대 이상으로 구분해서 분석하면 60대는 2024년 전체 기독교인의 15.9%에서 2050년 15.0%로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70대 이상 기독교인은 전체 기독교인의 13.0%인데 2050년에는 28.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두 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점차 70대 이상의 고령 노년층의 기독교인 비율이 증가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대 사회적 영향력 감소

2050 한국교회를 전망하면서 종교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예견하게 되는데 이는 단지 교인수의 축소 현상만이 아니라 대사회적 영향력의 축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종교인구의 감소 요인 중에는 종교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포함되는데, 종교인구의 감소는 또 영향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된다. 먼저 2021년에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은 종교인구가 감소하는 탈종교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¹³⁾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교인구 비율이 2004년 54%에서 2014년에 50%로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40%로 감소하여 불과 최근 7년 사이에 10%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로는 남성 종교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종교인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19-29세의 가장 젊은 연령대는 22%만이 종교인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연령이 높은 순으로 재배열하면 역삼각형 모양이 되는데, 향후 우리나라에 있어서 다음세대의 탈종교화가 가속화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표7] 한국 종교인 비율(2004-2021)

단위: %

조사연도		2004년	2014년	2021년
전체		54	50	40
성별	남	44	44	34
	여	63	57	56
연령별	19-29세	45	31	22
	30대	49	38	30
	40대	57	51	32
	50대	62	60	43
	60대이상		68	59

자료: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청소년부터 2030의 청년세대의 교인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국교회의 신뢰도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인식하게 된 중요한 측면이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공적 책무성이다.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었지만 코로나를 겪

13)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2021.6.4.15:41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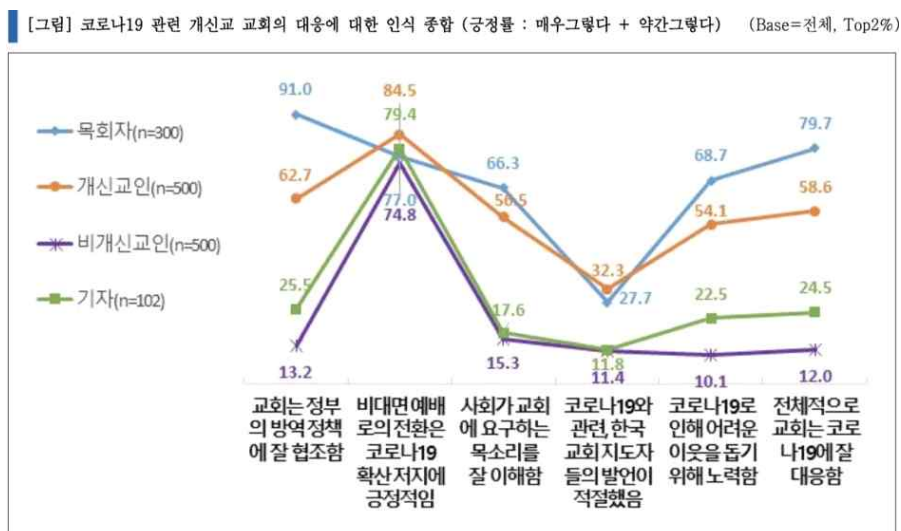
으면서 한국교회 신뢰도는 더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목회데이터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직전인 2020년 1월에는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8%였는데, 2021년 1월에는 20.9%로 감소하였고, 2022년 4월에는 18.1%로 감소하였다.

[그림19] 한국교회 신뢰도 변화 추이(2020-2022)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2021년 1월 6-17일, 목회자 300명, 개신교인 500명, 비개신교인 500명, 기자 102명 등 14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개신교 교회의 대응에 대해서 목회자(79.7%)와 개신교인들(58.6%)은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기자들의 긍정 비율은 24.5%, 비개신교인들의 긍정 비율은 12.0%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¹⁴⁾ 기자들의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비개신교인들의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그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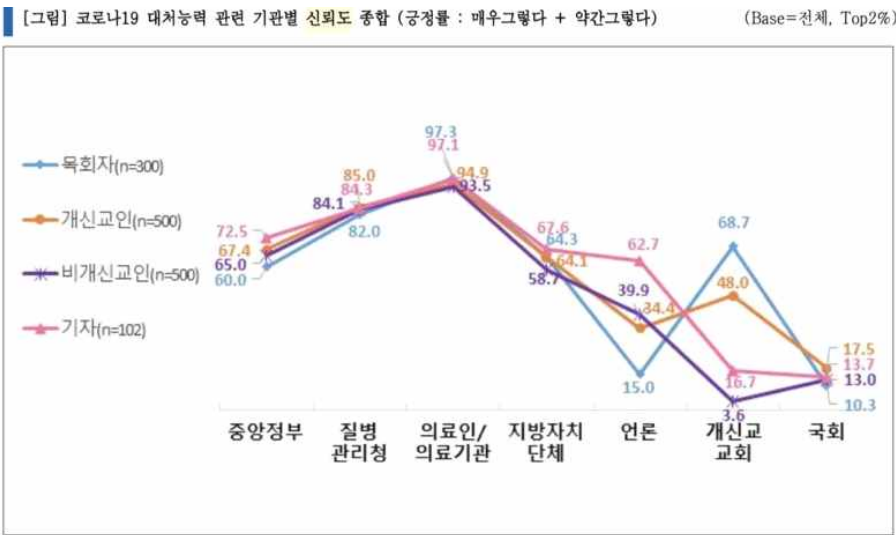
[그림20] 코로나19 개신교 대응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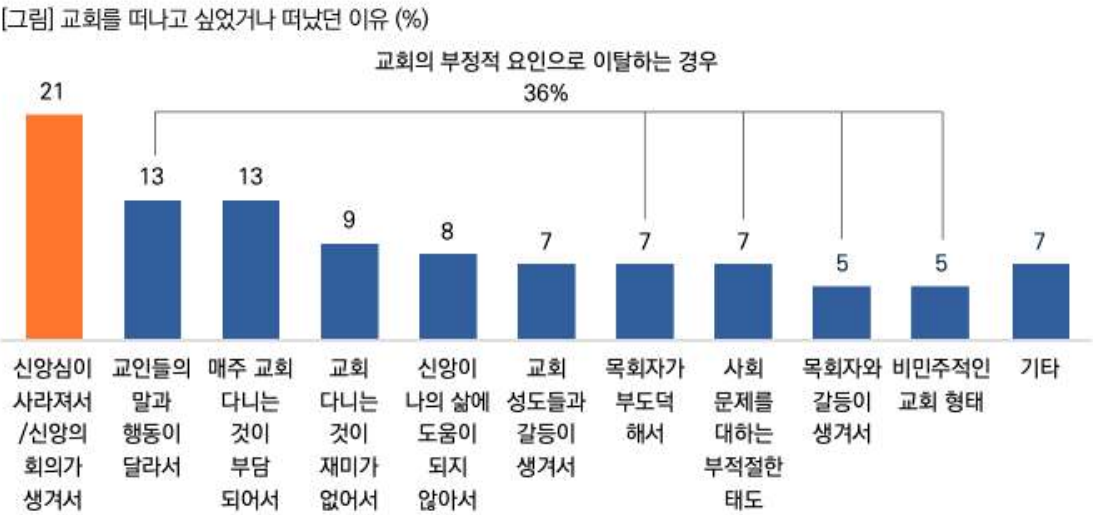
14)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54>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능력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대처에 대해서 68.7%가 긍정하고 있고, 개신교인들은 48.0%가 긍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기자들의 긍정 비율은 16.7%, 비개신교인들의 긍정 비율은 3.6%에 불과하였다. 특히 비개신교인들의 코로나19 대처 관련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평가는 국회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개신교인들이 개신교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21] 코로나19 대처 관련 기관별 신뢰도



[그림22] 교회청년 교회 이탈 이유



자료: 목회데이터연구소/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교회출석 청년의 삶과 신앙>, 넘버즈226호, 2024. 1. 30.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교회출석 청년의 삶과 신앙>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었거나 떠나게 된 이유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신앙심이 사라져서/신앙의 회의가 생겨서’(21%)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인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36%)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교인들의 이중성, 목회자의 부도덕, 사회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 목회자와의 갈등, 비민주적인 교회 형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신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050 한국교회, 특히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교인수는 더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체 교인수의 감소는 물론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III. 2050 한국교회를 위한 새로운 교육비전

2050 한국교회의 모습은 지금과 비교할 때 심각하게 규모가 축소된 모습이다. 특히 다음세대가 위축되고 청년세대가 격감하며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노년 성도의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현상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 25년의 시간이 있다. 이 시간동안 어떤 비전을 품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2050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2050 한국교회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되 미래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1. ‘수축’과 ‘축소’ 속에서 복음의 본질 회복하기

2050 한국교회는 지난 140년 선교 역사 속에서의 한국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망된다. 1885년 조선 땅에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어 시작된 한국의 기독교는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2010년을 전후하여 한국교회는 그 성장 곡선이 멈추고 감소 추세로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한국교회의 거의 모든 교단의 교인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인수 감소는 한국교회의 모든 영역이 축소되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과거의 한국교회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팽창’이었다면 이제는 ‘수축’이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팽창’에서 ‘수축’의 시대로 전환하는 한국교회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동안의 팽창과 성장, 확산과 성공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 본질의 결과이었는가? 혹시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이 아닌 성장과 성공에 대한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과연 ‘성장’이 아니고 ‘축소’이어도 교회의 사역은 의미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가? 진정 향후 한국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지금 한국교회는 2050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과거의 한국교회가 ‘성장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재건축하여 교회성장을 추구하였다면, 이제는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한 영혼의 귀중함에 주목하며 양이 아닌 질의 목회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안에 성장의 욕구와 팽창의 그림이 각인되어 있다는 점이다. 모든 사역이나 활동이 성장과 확산, 팽창을 전제로 설정되어 있고, 오랜 세월 성장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성장의 DNA’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성장’이 한국교회의 일종의 성향(disposition)이 되어 존재 자체를 구성할 정도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

이니라”(마16:24)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장과 팽창을 추구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수축과 축소의 흐름’ 속에서도 진정한 복음을 좇을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일 것이다.

2050년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한국교회는 본격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수축과 축소 시대의 한국교회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토론이 필요하다. 이미 일반 사회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담론이 시작되었다. 홍성국은 그의 책 『수축사회』의 부제를 ‘성장 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로 정했다.¹⁵⁾ 팽창사회와 수축사회를 대비시키며, 그동안 끝없는 성장과 팽창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 수축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 시절 미래는 늘 희망적이었다. 현실이 다소 어렵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삶이 크게 향상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미래는 암울하고 불확실한 것이 되었다. 그 이유는 사회의 기초 여건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이후 거의 500년간 세계는 파이가 커지는 팽창사회였다.”¹⁶⁾

한국교회야말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성장과 팽창의 시대를 거치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견디면 교회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고 교인수도 감소하는 축소와 수축의 시대에는 그전과 같은 희망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전제로 한 모든 시스템은 이제 지속될 수 없다.”는 그의 말은 한국교회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경고일 것이다.¹⁷⁾

‘수축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요소로 저자는 ‘사회적자본’을 제안하고 있다. 자신의 욕망을 줄이면서 ‘공생과 이타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수축사회 해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았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공정 사회, 포용 성장, 지속 가능성, ESG, 소확행, 미니멀리즘” 등이 일종의 욕망을 줄이면서 사회적자본을 확충하는 사례들로 보고 있다. ‘파이’가 적어지는 수축사회에서는 제로섬 전쟁 같은 욕망의 각축전은 공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는 종교가 수축사회에서 사회적자본의 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종교 자체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수축사회의 문제는 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하였다.¹⁸⁾

앨런 말라흐(Alan Mallach)는 그의 책 『축소되는 세계』에서 “축소되는 지구에서 살아가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것과는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¹⁹⁾ 이 말은 ‘축소되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팽창하는 교회가 아닌 축소하는 교회는 그동안 익숙했던 방식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요청한다. 저자는 “위대한 도시를 인구가 많은 도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위대한 교회는 교인수가 많은 교회, 양적 성장을 한 교회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²⁰⁾

성장주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성장이 성공이요 감소는 실패라는 명제가 성립된다. 이것은 사회와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말라흐는 “사람들이 성장 자체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인구 감소를 실패의 신호로 여기는 한, 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우리 지역은 망했다’라는 부정적인 관점에 반영된 뿌리 깊은 비관론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말한다.²¹⁾ 이것을, 교

15) 홍성국, 『수축사회』 (서울: 메디치미디어, 2018).

16) 위의 책, 6.

17) 위의 책, 254.

18) 위의 책, 268, 380.

19) 앨런 말라흐(Alan Mallach), 김현정 역, 『축소되는 세계』 (서울: 사이, 2024), 14.

20) 위의 책, 317.

21) 위의 책, 321.

회성장 패러다임 안에서는 교인수 감소를 실패로 여기며, 교인수가 감소한다는 사실만으로 절망하는 것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축소 사회 속에서 교육의 문제를 말하면서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 전환되는 것을 새롭게 이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는 본질적으로 효율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 신입생 등록 감소를 위기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더 학생 친화적인 가치관을 중심으로 학교 시스템을 재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 학교를 지역사회 일부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²²⁾ 저성장 시대, 축소 시대에는 ‘소규모’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구가 축소되고 노령화되는 지역사회 속에서 새로운 시도로 요양원과 유치원이 상생하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주 켄크스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 ‘그레이스 리빙 센터’(Grace Living Center) 안에 교실을 만들어 연간 1달러의 임대료만 받고 유치원에 임대한 사례이다. 노인들과 아이들이 함께 활동면서 노인들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졌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읽기 능력이 향상되고, 책임감, 자제력, 관용, 다름을 수용하는 자세 등을 노인들로부터 배우며 더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³⁾

2050 한국교회를 전망하면서 ‘성장하는 교회’에서 ‘축소하는 교회’로의 전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축소, 수축, 감소, 소규모 등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알게 모르게 팽창되었던 것이 ‘욕망’이었음을 간파하고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야망에 근거한 기획이 아닌, 하나님의 원래 의도(original intention), 하나님의 디자인(God’s design)을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축소’를 새로운 변화의 긍정적인 계기로 삼아, 보다 가치있고 의미있는 질적 성숙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만의 팽창을 시도하기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면서 공생하며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2050 한국교회는 이런 점에서 진정한 교회됨을 회복하고 교회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변화 추구만이 아니라 ‘수축사회’로 변모하는 한국사회를 새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다음세대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교회, 가정, 학교 연계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수축사회’ 속에서 교회마저 ‘수축교회’로 변모해가면 갈수록 중요한 과제가 신앙의 계승이다.²⁴⁾ 한국교회의 ‘수축’이 ‘소멸’로 가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내적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세대를 건강한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대받은 주기관은 교회학교이고, 담당자는 교회학교 교사였다. 그러나 수축교회에서는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급증하게 되면서 ‘교회학교 패러다임’에 대한 한계와 그 대안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서북노회(예장통합)가 목회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포스트코로나시대 교회학교 전략 방향>에 의하면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43%였으며, 목회자들의 90%가 ‘교회학교 교육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²⁵⁾ 즉, 교회학교 체제로는 더 이상 다음세대

22) 위의 책, 360.

23) 위의 책, 361.

24)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목회자의 가장 큰 관심은 ‘다음세대 목회’로서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통계(218호), 한국교회 추적조사 2024(2024. 2. 20))

교육을 감당할 수 없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대안적인 패러다임은 주일 아침에 1시간만 진행되는 교회학교만이 아닌 부모중심의 가정-교회 연계 모델이다. 2050 한국교회를 향한 다음세대 교육의 새로운 비전은 교회학교 체제에서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고 학업까지 연계되는 소위 삼위일체 교육의 비전이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다음세대 교육은 교회학교 중심의 교육이었다.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주일학교 운동은 많은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점점 교회와 가정은 분리되었고, 부모의 자녀 신앙교육의 역할은 사라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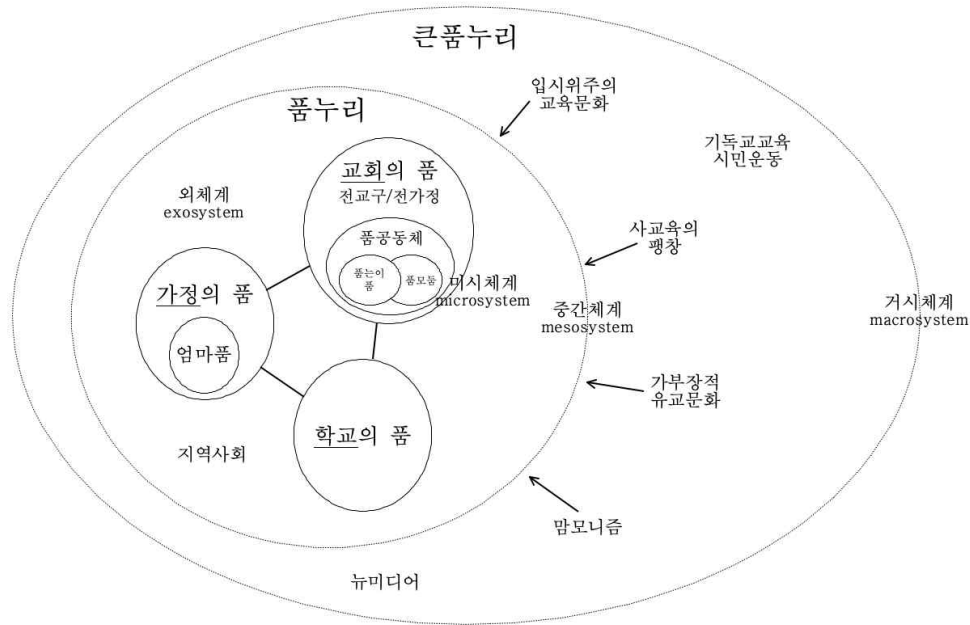
2050 한국교회를 전망할 때 이런 분리를 극복하고 교회, 가정, 학교를 연계하는 통합된 교육을 추구하여야 한다. 기독교교육은 본래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군으로 세움받는 과정은 통합되어 있다. 교회, 가정, 학교의 연계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교육까지도 포함해서 전체 기독교교육생태계가 복원되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 한 아이가 기독교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기독교교육생태계가 필요한 것이다. 교육은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교육은 좁게는 학교 안의 교사, 학생, 교재의 관계를 통해 영향을 받지만 학교 내의 다른 환경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미디어, 문화 등 더 넓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2050 한국교회는 기독교교육생태계가 다음세대를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²⁶⁾ 기독교교육과 관련된 교육생태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미시체계는 가정 안에서 자녀가 부모와 맺는 관계,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와 그로부터 받는 영향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학교 내의 학생과 교사의 관계, 그리고 같은 분반의 학생 상호간의 관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교육의 미시체계는 다시 중간체계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교회학교와 가정의 관계, 가정과 학교의 관계, 교회학교와 학교의 관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중간체계는 다시 외체계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역사회, 교육청, 다양한 교육기관들, 그리고 노회와 총회 등의 단체들을 포함한 생태계를 상징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체계는 문화적인 영향력까지를 포함하는데 학생과 가정,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문화와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문화, 그리고 돈을 숭상하는 맘모니즘, 이념적인 갈등, 지역 간, 세대 간 갈등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교육생태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5)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서북노회(예장통합) 교회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2022.

26) 기독교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전 영역에 대한 관심을 지녀야 하는데, 한 사람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브론펜브레너(Urie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생태학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준다. 그는 그의 저서 『인간발달생태학』(*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에서 인간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체제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시체계(chronosystem)이다.(Urie Bronfenbrenner,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trans. Lee, Yeong, *Inganbaldsaetaehak* (Seoul: Kyoyookbook Publishing Co., 1992), 7.)

[그림23] 기독교교육생태계 개요



3. 노년에 대한 재개념화와 새로운 노년교육

2050 한국교회를 전망할 때 가장 큰 특징은 노년 성도의 급증이다. 지금도 한국교회 안의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는데 2050년을 향해 가면서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다. 2050년 한국사회에서 65세 이상의 노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0.1%인데 한국교회는 그보다도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노년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그보다 두배 이상 높은 비율로 노년 교인은 증가할 것이다. 그야말로 ‘노년교인’ 가장 큰 목회와 교육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평균 수명이 그리 길지 않은 때에는 60세가 넘으면 일선에서 물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노후의 삶을 대비하였고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소위 100세 시대라고 일컫는 지금은 60세 이후에 30-40년을 더 살아야 한다. 2050년에는 기대수명이 더 길어질 것이다.

2050 한국교회는 노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청된다. 과거에는 중, 장년 중심의 목회를 하면서 노년은 잘 섬겨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가 노년부서나 노인대학을 개설하여 취미생활과 건강관리, 소풍이나 효도관광 등을 통해 ‘남은 여생’을 편히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절반에 가깝고,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건강과 지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 이 시대에는 교회의 주대상으로 노년을 인식하고 그들을 향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목회와 교육을 하여야 한다.

김형석 교수는 그의 책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서 인생의 황금기가 60-75세라고 말한다.²⁷⁾ 지금은 그 책을 집필할 때보다 더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65-80세가 전성기일

27) 김형석, 『백년을 살아보니』 (서울: 덴스토리, 2016).

수도 있다. 인생을 3막으로 구분한다면 첫 1막은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자신의 길을 찾는 과정으로서 대략 0-30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생 2막은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도 꾸리고 교회에서도 직책을 갖고 일하는 단계로서 30-60세 또는 65세에 해당하는 연령이다. 그런데 인생 3막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60세 또는 65세 이후에 펼쳐지는 또 다른 인생의 여정이다. 교회는 이러한 인생 3막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이들이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폴 스티븐슨은 『나이들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노년기가 재소명의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책의 부제가 ‘당신의 소명을 재구성하라’(finding your calling for the rest of your life)이다. 그는 소명(calling)을 직업(occupation)과 구분하면서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은퇴를 한다고 해도 소명은 지속된다고 하면서 은퇴의 시기, 노년의 시기는 진정한 자신의 소명을 새롭게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간으로 이해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은 노년의 시기에도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명을 재구성하여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²⁸⁾ 스티븐슨은 성경의 노인들이 끝까지 소명의 삶을 살았음을 상기시키며,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소명을 재구성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임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050년을 향해가는 한국교회는 노년 성도들이 재소명을 통해 인생3막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세워야 할 것이다.

2050년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교회는 노년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노년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로움, 즉, 고독의 문제이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사별, 동료나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 자녀들이 다 떠나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외로움이다.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노인들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먹을 것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고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노년목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을 홀로두지 않고 관계 안으로 초대하여야 한다. 노인들의 소그룹 안에 속하게 하고 그들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여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노인들 상호간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다른 세대들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이 아니라 조부모와 손주들 간의 관계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격대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노인들이 다른 세대와도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줌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4. 교회성장주의를 넘어서신 하나님 나라 교육

2050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주의의 틀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여야 한다. 축소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며, 성서가 증언하는 바 진정한 복음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와 가르침의 중심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공관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basileia tou Theou)라는 개념은 100회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교회(ecclesia)라는 개념은 단 2회 정도 언급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칼 바르트(Karl Barth)가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서 ‘잠정적 공동체’로 이해한 의미일 것이다. 스탠리 그

28) Paul Stevens, 박일귀 역, 『나이들의 신학』 (서울: CUP, 2018), 47.

렌츠(Stanley Grenz)가 그의 책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신학』(*The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올바른 교회론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교회라는 개념보다 넓기 때문”이며, 동시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²⁹⁾

교회는 소위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존재하는데, ‘이미 이루어졌음’(already fulfilled), ‘아직 완성되지 않음’(not completed yet) 사이에 존재한다. 교회는 이러한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서 이미 선취된 하나님의 나라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해 가야하는 책임을 지닌다. 2050 한국교회는 교회주의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여야 한다. “교회와 기독교가 곧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될 수는 없어도, 교회와 기독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징표요, 미리 맛봄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해야 하는 도구인 것이다.”³⁰⁾

한국교회의 교회주의적 성향은 교회의 교육에 있어서도 그대로 발견되어진다. 그동안의 교회의 교육은 ‘하나님 나라’ 모델이라기보다는 ‘교회주의’ 모델이었고, 교육의 관심이 교회 울타리 안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교회학교마저도 ‘교회학교 성장주의’에 갇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50년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교회는 종래의 교회 교육이 제대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고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 교육은 교육 고통을 하나님의 살림으로 변화시킬 소명이 있는 것이다.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내용이 교육의 영역에서 성취되도록 추구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과제요 사명이다.

오늘날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각종 언론보도가 연일 학교교육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도하고 있고, 여전히 삶의 생기와 희망을 갖지 못한채 고통스럽게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을 날마다 접하고 있다.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창세기(1: 2)의 말씀처럼 교육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차 있다. 교육으로 인한 신음소리와 탄식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다. 2050년까지 이런 고통의 교육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왜곡되고 뒤틀린 교육을 원안교육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이 가득한 세상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5. ESG 기독교 교육: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청지기 교회

2050년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기후위기일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태계의 파괴와 이로 인한 온갖 재해 발생의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2050 한국교회를 전망할 때 묵회와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환경과 생태보전에 대한 청지기적 인식과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실천을 들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이 인간의 자연과 환경 파괴에 의한 것임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전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한국교회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합시다”라는 주제로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한국교회>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50년을 ‘한국교회 탄소중립 완성의 해’

29) Stanley Grenz, *The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 신옥수 역, 『조직신학: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신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2003), 685.

30) 이형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5), 346-347.

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 탄소배출 감축 이행목표 달성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한국교회의 탄소배출을 2040년까지 100% 감축합시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흡수원 확대. 둘째, 한국교회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생태적 전환을 이룹시다: 생태선교로 전환, 기후위원회 조직, 생태교육 실시. 셋째,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세계교회와 함께 한국사회의 탄소배출 감축 활동에 적극 참여합시다.”³¹⁾ 이러한 사례는 2050년을 향하는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회복은 비단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변혁을 위한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며,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제자직만이 아닌 시민직에 대한 강조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공공의 영역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공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여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진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ESG 정신은 기업의 지속가능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050 한국교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요청된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인데,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의 시대에 기업이 친환경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와 지배구조를 보다 구성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호영 교수는 ‘ESG와 기독교’라는 글에서 ESG를 기독교 공동체와 연결시켜 그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교회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창조세계 보존의 사명을 맡기신 것은 환경(E)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본질은 이웃사랑의 사회적(S) 가치이고, 겸손과 섬김, 믿음과 진실을 강조하는 복음의 정신은 지배구조(G)와 리더십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³²⁾ 이러한 ESG의 개념은 2050년 한국사회를 전망하면서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공적 가치를 잘 담고 있다. 이를 교육적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ESG에 대한 교육신학적 접근이 요청된다. ESG에 대한 성경에 기반한 교육신학적 재조명을 통하여 목회와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미 기독교 교육학의 영역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활발하게 교육의 주제로 다루어지지 못한 창조교육, 환경교육, 생태교육과 같은 환경(E)의 중요성, 정의교육, 평화교육, 공정과 평등교육과 같은 사회적 책임(S)의 중요성, 만민제사장 교육, 섬김의 리더십 교육, 기독교윤리교육과 같은 건강한 지배구조(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교회교육의 커리큘럼에 반영하여야 한다.

2050 한국교회를 전망할 때 교육에서의 ESG 접근은 전통적인 ‘성장주의적’ 교회교육에 대한 반성을 요청한다. 교회교육이 변형신학의 시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소위 교회성장을 위한 도구로서 교회학교 성장주의에 함몰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전체 지구 공동체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하나님 나라 일군을 양성하는 교회교육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SG가 교회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교회학교, 남녀선교회, 교회 내 부서, 선교 및 봉사활동 등 교회의 각종 기관 및 단체의 운영이 ESG에 합당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

31) https://greenchrist.org/community_2/?uid=5772&mod=document

32) 이호영, “ESG와 기독교,” <2022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22. 11. 12.

IV. 나가는 말

2050 한국교회와 관련된 거의 모든 지표는 한국교회가 축소하여 ‘수축교회’가 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수축을 소멸의 과정이 아니라 본질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수축교회는 오히려 생명력을 지니며 복음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³³⁾ 한국교회가 욕망과 야망에 근거한 성장주의와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수축’을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다면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한국사회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평화가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수표교교회는 지금은 교회당을 이전하여 서초지역에 자리잡고 있지만, 교회가 설립될 당시에는 청계천 수표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그 이름을 갖게 되었다. 수표교는 조선시대 이후 청계천에 있는 다리로서 다리 밑에 청계천의 물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수표(水標)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수표석은 수표에 차오르는 물의 높이를 보고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도록 한 것이다. 이 수표교는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북촌과 남촌으로 나뉘어진 계층과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였으며, 『수표교교회 역사(1909-2023)』는 이런 수표교의 의미를 “만남과 교류, 그리고 경계와 표준”으로 해석하였다.³⁴⁾

이런 점에서 수표교교회는 진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사랑과 공의의 기준으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 나누어진 지역과 계층, 세대와 문화를 연결하여 소통하는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수표교포럼도 이런 취지에서 개최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수표교교회와 수표교포럼이 다가오는 2050년의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분리되고 나누어진 교회와 사회, 세대와 세대, 온갖 갈등들을 연결하고 치유하는 소통의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33) 2050년을 전망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진홍목사가 『한국교회가 가야할 길』에서 이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가 영성, 공동체성, 공교회성, 공공성을 상실했는데, 이를 회복하여 한국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되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김진홍, 『한국교회가 가야할 길』 (서울: 킹덤북스, 2022))

34) 수표교교회 역사편찬위원회 편, 『수표교교회역사(1909-2023)』 (서울: 그리심북, 2023), 32.

논찬

한국사회의 미래와 한국 교회의 2050 비전

박해정 목사(감리교신학대학교 예배학교수)

들어가며: 마라나타!

박상원 박사의 ‘한국 사회의 미래 시나리오’와 박상진 교수의 ‘2050 한국 교회 전망과 새로운 교육 비전’을 읽고, 논찬자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마라나타’였다. 두 글의 공통적인 핵심은, 미래 시대는 기술의 시대로서 사회는 발전하고 편의성 역시 높아지겠지만, 그와 반대로 종교성은 약화되며 특별히 기독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견이다. 색으로 표현한 미래는 흰색과 갯빛의 혼재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문명의 확장으로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인구는 절대적으로 감소할지 모르지만,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그리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될 것 같은 문제들이 교회 문턱에 쌓여가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다.

논찬: 통감

먼저 두 박사의 발제는 2050년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와 학문적 통찰을 제공한다. 이미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방향을 익히 알고 있으며, 이를 삶에서 체감하고 있다. 두 박사의 구체적인 데이터와 전문가의 제언은 미래 사회를 보다 명확하게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며, 특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대비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의 교회 상황은 다소 나은 편이나, 지방 교회의 교회학교는 이미 예배로 모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지방 차원에서 연합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진행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상황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학령 인구의 감소와 종교인 감소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10여 년 전부터 ‘헬조선,’ ‘3포세대’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종교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종교 인구 감소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에는 비종교인이 47%였으나, 2021년 조사에서 이 비율은 60%로 증가하였으며, 비종교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대 종교인의 비율인데 이는 불과 22%로, 무종교인의 비율이 무려 8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대한민국 개신교인의 비율은 17%로, 그 수치는 1984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무엇보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종교에 대해 비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호감도이다. 2004년에는 비종교인의 33%가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고 답하였으나, 2021년에는 이 비율이 61%로 증가하였다. 각 종교별 선호도는 불교 20%, 천주교 13%, 개신교 6%로 나타났다.

두 발표자의 연구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종교 의식은 2050년 교회의 비전을 논하기에 매우 비관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구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는 여전히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 과거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에 맡겨진 사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질문 및 제언: 불안함을 기대감으로

논찬자는 목사이자 신학자, 예배학자의 관점에서 ‘한국 교회 2050’을 간단히 조망하며 두 발표자에게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박상원 박사의 논문에서도 언급하듯, 미래 사회는 ‘인류 중심적 사고에서 인공지능 중심적 사고로 전환’될 것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기술 중심의 사회는 이미 도래하였으며,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AI 기술이 종교의 영역에서도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 신체화된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은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이것이 기존의 종교적 기능까지 감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신체화된 AGI란, 인공지능이 물리적 실체를 가지며 인간과 유사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단순한 정보 처리 기능을 넘어서 역할을 수행하는 AGI를 의미한다. 심지어 목회자의 기능도 AGI가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AI가 다양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 인간의 감정까지 읽고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며, 이는 종교인의 역할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인간과 유사한 모습의 AGI가 실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며 축도하는 시대가 올 것인가? (박상원 박사님께 드리는 질문) 교회가 다중 시나리오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미래 AGI의 역할은 이러한 경우에게 확장될 수 있겠는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성직자의 기능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시대는 오지 않아야 한다. AGI가 성직자 기피 현상의 가속화와 목회자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 성직자 기피 현상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현재 개신교뿐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23년 조계종 출가자는 61명으로, 1991년의 517명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2023년 천주교 신학생 수는 75명으로 줄어들었다. 부산가톨릭신학대학교는 2019년 이후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성직자의 비윤리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로봇 목회자를 청빙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박상진 박사의 교회 교육에 대한 반성과 제언에 깊이 공감한다. ESG 개념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 교육의 변화를 요청한 박사님의 해안은 예배학적 관점에서도 또한 중요하다. 이는 교회를 성례전적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교회는 성례전적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며, 오늘날 몇몇 교회들의 문제는 주로 인효론(ex opere operantis)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목회자의 개인적 역할이 과도하게 드러나면서 발생한다. 교회의 성장주의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결론: 부끄럽지 않게

인간은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교회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부끄러운 행위가 2050년 교회의 존폐를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가 공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교회로 날마다 불러주실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

논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망하는 2050 한국교회

장창일 차장 (국민일보 종교부)

1. 계도화 된 교회

코로나19 때 갑작스러웠던 집합 금지 조치로 준비되지 않은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다. 교회마다 고심했으나 적지 않은 교회는 담임목사가 빈 예배당에서 설교한 걸 유튜브를 활용해 그대로 송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온라인에 맞는 콘텐츠 없이 비대면예배가 시작된 것이었다.

당시 서울 시내의 오랜 전통을 가진 한 교회의 부목사 A에게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다. “불경을 들어줘도 들으실 분들만 온라인에 남았다. 동시 접속자 수가 전체 교인의 20%에 못 미친다.”

더욱이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교회의 미래로 여겨지는 3040세대는 교회를 떠났다. 온라인 예배라는 편리함을 경험한 이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뿐 아니다. 코로나는 끝났어도 봉사에 대한 열정이나 헌금 생활 등이 2년 가까이 단절되면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적지 않은 교회가 ‘헌금이 줄지 않았다’고 하는데 누가 헌금을 하고 있는지 세대별로 파악해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3040세대의 단절은 교회학교 학생들의 단절과 직결된다. 교회학교 학생들만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결국 2050년 교회는 소수의 신앙공동체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예상된다. 급격히 수가 줄면서 사회적 영향력도 줄어든다. 더 이상 ‘교회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어지는 계도화된 교회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 실버세대를 위한 목회

60대 이상 교인이 전체 절반에 육박하는 ‘실버 크리스천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앞서도 인용된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한국교회총연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28.9%(240만명)인 60대 이상 고령 교인 수는 점진적으로 늘어나 2050년이 되면 전체 43.9%(246만명)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인 2명 중 한 명이 60대 이상이 된다는 의미로 ‘실버 목회’가 미래 목회 대안이 된다는 분명한 지표가 되는 셈이다.

반면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것도 미래교회가 맞이할 변화상이다.

이번 조사 결과 19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교인은 2024년 14.7%(122만명)에서 2050년이면 12.5%(70만명)로 줄어든다. 20·30세대 교인도 같은 기간 26.0%(215만명)에서 16.7%(94만명)로

내려앉는다. 40·50세대도 3.5% 줄어든 26.9%(150만명)로 30.0%선이 무너진다.

3. 마이크로 교회 확산

장기적으로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튼튼한 교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교회는 헌신적인 헌금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하는 중대형 교회를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등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거주 시민들은 점차 헌금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가 보도한 ‘서핑 목상’ ‘영화 목상’ ‘독서 목상’ 등 동호회 기반의 신앙 공동체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셀럽 크리스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작은 신앙 공동체를 꾸리는 일도 늘 것으로 전망한다.

4. 온라인예배 기반 SNS교회

‘가나안교인’ 증가는 불가피한 미래다. ‘쇼츠’ ‘릴스’ 등 짧은 동영상으로 공개되는 숏폼 콘텐츠에 실린 복음적 메시지를 즐기는 세대가 늘어난다.

교회에는 가지 않아도 숏폼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복음적 감동을 얻는 세대의 등장이다.

5. 청년 연합집회, 블루오션

교회엔 가지 않아도 신앙을 유지하는 젊은이들은 연합찬양 집회에 대한 갈망이 있다.

흩어진 크리스천이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간이 바로 청년 연합 집회가 아닐까 전망해 본다.

한 데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뒤 다시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신앙인이 늘어난다.

6. 외국인 신앙 공동체, ‘복음 어카운터빌리티’ 강화 등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64만명에 달한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사이에 47% 이상 늘어난 결과로 2030년이 되면 3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이주민 가정 학생도 18만여명 수준으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다.

우리가 미국 등 해외에서 미국인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이주민 신앙공동체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책무(어카운터빌리티)도 강화된다.

교회를 둘러싼 각종 사회 문제를 둘러싼 책임도 무거워진다. 교인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종교사회학 분야의 연구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논찬

한국사회의 미래와 한국 교회의 2050 비전

광림교회 청년선교국 김주송 목사

1. 들어가는 말

현대 사회는 급변하는 문화와 기술적 발전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맥락에서, 박성원 교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교회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그는 미래가 단순한 현재의 연속이 아니며,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환경에서 교회가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 개념을 통해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이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회가 전통적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와 유사한 시각에서, 박상진 교수는 한국교회가 지난 140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현재 교세의 감소와 청년세대의 급격한 축소, 고령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박성원 교수가 언급한 창의적 사고와 미래 전략의 필요성과도 상통하는 지점이다.

본 논평에서는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한국교회가 당면한 도전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6가지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수의 제자공동체에 의해 세워진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교회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 사명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시대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 몸 말

2.1. 영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한국교회의 위기는 목회자 영성 위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교회의 존속과 발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타 종교와 구별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적 사귄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목회자가 이를 얼마나 깊이 체험하고 성도들에게 전수하는지에 따라 교회의 생명력과 활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목회자는 단순히 기독교 교리와 윤리를 가르치는 성경 교사의 역할이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상담가의 역할을 넘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돕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체계적으로 훈련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성도들이 영적 체험을 배우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사도행전 6:4절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따라서 목회자는 무엇보다

다도 자신이 먼저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해야 하며, 그로 인해 얻은 영적 체험과 원리를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수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목회자 영성의 회복은 교회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 공동체이며, 예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예배는 점차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틀에 갇혀, 성도들이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회자 자신이 예배에 대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성도들 또한 예배를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견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여야 하며, 이를 위해 목회자가 먼저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같은 영적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사도행전 16:25~26절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진과 함께 감옥 문이 열리는 사건을 체험했다.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초대교회 성도들과 나누었다.

한국교회 목회자는 자신이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해야 하며, 성도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회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2.3. 속회: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공동체

미래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의 교회’인 속회이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다.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하와를 보내주셨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의 존재와 사귀어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예수께서도 공생애 동안 12명의 제자와 공동체를 이루어 사역하셨으며, 부활과 승천 후 그들에게 2가지 선물을 주셨다. 첫째는 약속하신 성령이었고, 둘째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 사도행전 2:45~46절에 따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일에 가정에 모여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으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소유를 나누었다. 또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 자신들이 겪은 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나갔다.

현재 한국 감리교회의 속회가 약화된 것은 교회의 건강성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속회는 단순한 교인 관리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이자 가족공동체로 기능해야 한다. 성도들은 속회를 통해 평일에 가정에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한 가족으로서 서로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위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속회는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로 자라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고독과 외로움으로 규정할 수 있는 미래 사회에서 속회가 회복된다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강력한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평일 가정에서 모이는 속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2.4. 전도: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공동체

현대 교회 안에서 점차 십자가, 죄, 회개, 구원,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과 같은 신학적인 주제들이 설교나 교육에서 그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주일예배 설교 주제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며, 대한민국에 사는 85%의 비기독교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드물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형교회로 수평 이동은 늘었으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는 이들의 숫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병자를 치유하는 세 가지 사역을 하였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또한, 초대교회가 급속히 확장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파했기 때문이다. 교회의 부흥은 율법에 기초한 윤리와 도덕의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함에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회복 또한 성도들이 먼저 십자가 복음을 깊이 믿고 체험한 후, 각자가 경험한 복음을 토대로 세상에 증언하는 증인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서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각 성도가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살아있는 증언으로 나누는 증인으로 서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5. 제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 양성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제자 삼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8:19~20a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전수하는 자를 의미한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자신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양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땅에서 교회가 반드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사명은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만으로 제자를 양성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도제식으로,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제자로 삼으셨다. 이에 따라 교회는 공동체로 모이는 속회를 통해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속장은 경건 생활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가까운 가족, 교우,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 이웃 사랑을 전수해야 한다.

교회가 제자를 양성하기 시작할 때, 성도들은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속에서도,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기준을 견고하게 지키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또한,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방황하는 이들을 교회

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

2.6. 선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초대교회는 예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다. 사도행전 1: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의 열두 제자와 사도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다.

오늘날 교회의 역할도 동일하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개인 성화), 그 땅에 교회를 세워 무리를 제자로 양성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사회 성화). 개체 교회는 선교의 규모와 형식에 관계없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를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3. 나가는 말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트렌드를 좇다 보면 본질을 놓칠 위험이 크다. 예수의 제자공동체가 세운 초대교회의 6가지 핵심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진솔한 삶을 나누는 속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 양성,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선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켜야 할 본질적인 가치이다. 우리가 이러한 핵심 가치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부름 받은 성도들이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반응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각자의 요구를 교회에 강요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변질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며 허물어질 것이다.

2050년을 대비하려면,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적용하는 대안들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며, 교회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세대의 회복이 더 시급하다. 현세대가 교회의 본질을 먼저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할 때, 비로소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수표교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52(서초3동 1488-2)

☎ 02)582-2557 Fax 02)582-2556

www.spkmc.kr